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2
축사 4

특집 1 | 성북구 도시개발 이야기
한국 최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9
지적도로 본 성북의 변화 14
기록으로 보는 성북구의 수해 극복기 19
이태준의『장마』와 성북동 24

성북 인물 초대석
소통하고 공존하는 마을을 꿈꾸는 건축가 - 이상훈 소장을 만나다 28
더 나은 성북을 향한 투지 - 고윤근 전 성북구의회 의장을 만나다 36

특집2 | 성북구의 문화예술인을 만나다
조태권 성북문화원 원장을 만나다 43
공감M아트센터 장옥주 대표를 만나다 52

성북공간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60
혜화문 아래 있었던 동굴 주점 64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일제강점기 한글학자의 시외생활기 68
성북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독립운동가가 되다 74

2022년 성북문화원의 행사
성북에서 다시 핀 꽃 - 이중섭, 김상옥, 금수현 77
성북동밤마실 81
2022 주민기록단 86
제2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 성북 마을기록 학술토론회 89
제4회 성북학 학술회의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들여다보기 94
2022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아득한 시간과 경이로운 풍경, 연천' 101

2022년 성북문화원 소식 105
2022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38
2022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40

발간사

『성북문화』 10호를 내며

어느덧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도 성북문화원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은 일상을 되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을 벗어나 우리의 삶과 문화를 되찾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강좌를 전면 재개하였고,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였던 축제도 비로소 개최하였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민들의 미소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있던 문화강좌의 전면 재개는 우리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의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전면 재개를 알리자마자 시민 여러분의 빗발치는 문화강좌 문의와 신청은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도 소중히 간직하였던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강좌를 더 소중히 여기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행사와 축제도 다수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성북구의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이육사 시인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제는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그가 살았던 종암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연녹색의 풍선은 이육사 시인의 대표 시 「청포도」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다례재와 심우장에서의 일화를 다룬 뮤지컬 심우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진행한 '문화가 있는 날 - 성북에서 다시 핀 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고, 문화 예술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갔던 지난 날을 뒤로 하고 현장에서 문화 예술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 성북동 밤마실 '달빛에 풀어지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성북동을 찾아 성북동과 그 속에 담긴 문화유산, 그리고 달빛이 한데 어우러져 자아낸 아름다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2022 성북천깃발전은 환경보호 캠페인 - 환경사랑, 성북사랑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 본 환경문제와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북학 연구와 학술적 측면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시작하여 타 지역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은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이 어느덧 5년을 맞이하였기에, '성북마을아카이브 5년, 성과와 전망'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성북마을아카이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마을기록을 바탕으로 '기록, 성북을 담다' 야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성북학 학술회의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서는 성북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색과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교양강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성북구 주민 아카데미 '성북구민이 알아야 할 재미있는 교양'과 프리미엄 인문학 강연은 우리 시민들의 교양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의 역사와 지역에 대해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우리 지역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을 맡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년에도 성북문화원의 소명은 막중합니다. 우리가 되찾은 일상을 보다 의미 있게 가꾸고, 또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비로소 다가올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문화원이 2022년 이루어낸 성과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성북문화원을 올해와 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양도성과 삼선동 장수마을

축사

성북문화원의『성북문화』1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문화의 기록과 보존에 힘써 온 성북문화원은 2022년 성북구 문화 발전의 든든한 토대로서 활약했습니다.

이번『성북문화』10호를 통해 성북구민의 밝고 열정적인 모습과 성북의 곳곳을 여러 사진과 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 한 해를 쉼 없이 달려온 성북문화원의 발자취를 선명히 되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성북문화원이 주관한 다양한 사업들은 성북구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문화가 있는 날, 성북구주민아카데미, 성북학 학술회의 등의 행사가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이루어져 구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성북마을아카이브 역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담아가며 성북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은 매년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쉴 새 없는 헌신과 도전으로 성북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구민들과 함께 했던 문화원 식구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성북문화원이 성북구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결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마주할 2023년 계묘년에도 성북문화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늘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제9대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입니다.

2013년 창간호로 시작되어, 올해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성북문화』제1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 역사와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성북문화』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성북문화원은 많은 구민 여러분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있으며, 성북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북구에 애정을 갖고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구·조사해온 성북문화원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성북문화』제10호는 한 해 동안 문화원이 진행해온 여러 문화사업의 결과를 엮은 성과물입니다. 이 잡지를 통해 함께 2022년을 되짚어보고, 새롭고 힘찬 2023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좋은 활동으로 만날 수 있길 성북구민과 한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의회는 성북문화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간을 축하드립니다.『성북문화』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지역문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성북문화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성북문화』 1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호 발간까지 함께해주신 조태권 성북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북구의 역사와 사람들의 자취를 담은 『성북문화』의 발간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성북문화원은 명실상부한 성북구 문화예술사업의 선두주자로서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문화활동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주민기록단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성북구의 문화를 해설하고 알리며 마을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이 있기에 성북문화는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북문화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6년 설립이래 성북문화원은 성북의 전통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왔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온 성북의 유서깊은 전통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구민과 하나 된 성북을 토대로 지역사회문화가 발전해야 합니다. 성북문화원이 성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모두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 된 성북구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돕겠습니다.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잡지 『성북문화』 1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올 새해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웃과 넉넉함을 나누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북구(을) 국회의원 기동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성북 문화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아온 『성북문화』의 열 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3년 첫 번째 발간 이래 『성북문화』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 활동을 기록함은 물론, 성북주민 여러분의 활동을 소개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어왔습니다. 『성북문화』는 단순히 성북구의 문화 소식지로서만이 아니라, 서울과 전국에서도 주목할만한 이야기가 담기는 문화예술 잡지로서 자리매김 했습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성북문화』가 발간되고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북문화원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성북문화원 관계자와, 지역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무너졌던 일상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도 이제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역사도시인 성북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2022년에 여러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성북문화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진행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추모 창작 뮤지컬 '심우'와 만해 한용운 다례제는, 성북구의 역사문화 인물인 한용운 선생을 기리고 추억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술회의, 연극, 음악,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역사문화를 알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성북문화원의 활동은 성북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는 문화예술역사도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2023년에도 더욱 발전된 활동을 통해 창조도시 성북구의 힘을 키우는 성북문화원이 되도록 저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성북구 골목마다 느껴지는 역사와 문화, 예술의 온기로 성북구민 모두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갑) 국회의원 김영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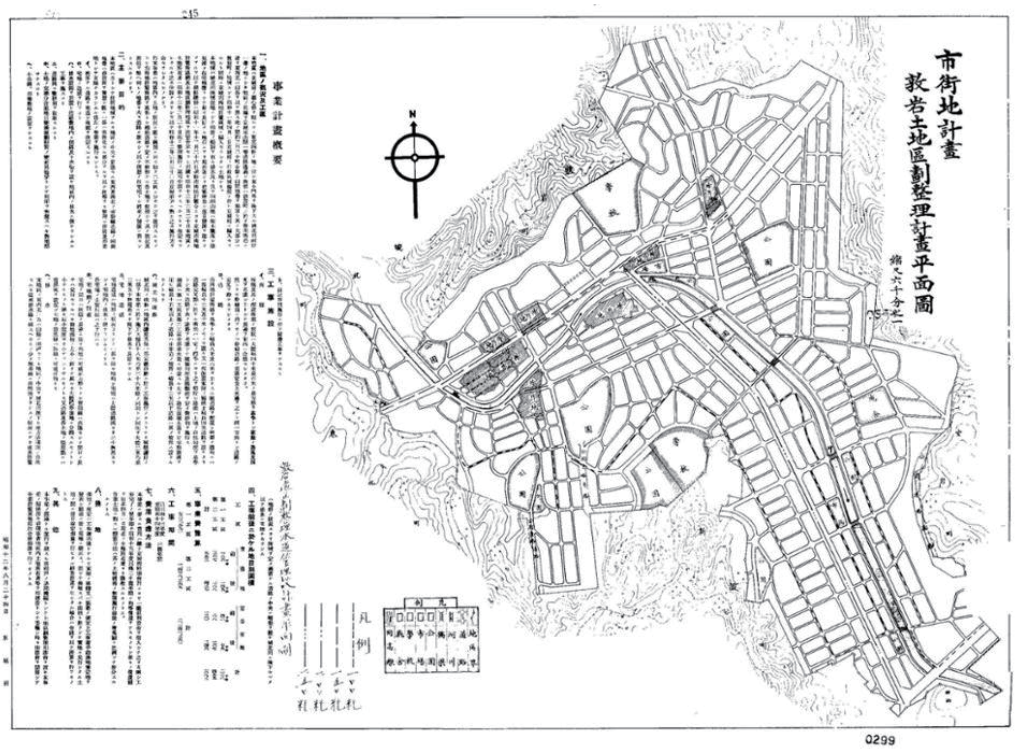
성북구 도시개발 이야기

한국 최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글 : 권수영(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수정 : 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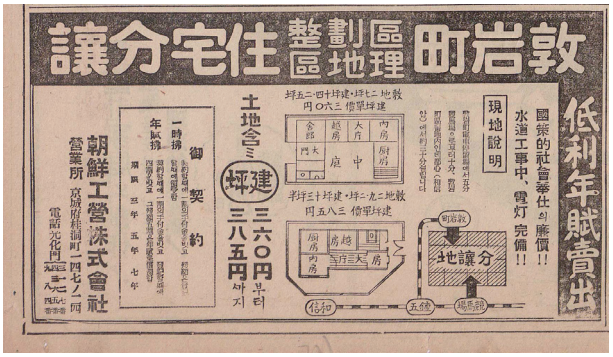
성북구는 서울시 지역 중 한옥 밀집도 2위를 차지하기도 할 만큼 근현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한옥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한옥들이 밀집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돈암지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돈암지구(敦岩地區)는 지금의 성북구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일대를 포함하는 곳으로 1936년 경성의 확장으로 처음 설치된 후, 1937년에 일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돈암 토지구획정리 계획평면도 (출처: 국가기록원)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학생들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성북문화원에서 수행한 프리인턴십 수업 실습의 일환으로 작성된 글



돈암지구 분양 광고, 《매일신보》, 1940.9.22. (출처: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서 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의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鄭世權)의 아들 정용식 등 조선인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이 조선공영주식회사와 동경건물주식회사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현재 4호선 지하철 한성대입구역과 성신여대입구역 사이를 잇는 노선 주변은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주거지 외 공원과 학교 2곳, 시장을 배치하였다.

조선공영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어울려 사는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개발이 추진된 돈암지구를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암지구 내 주택분양에 대한 광고를 실었다. 1940년 9월《매일신보(每日申報)》에 낸 위 광고와 같이 주로 부지 크기와 건평 단가에 대한 정보, 돈암정(敦岩町, 현 성북구 돈암동의 일제강점기 명칭) 전차정류장, 인근에 있는 경마장, 도심과 거리 같은 교통 정보, 수도·전등과 같은 편의시설 등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곳곳에 있는 돈암지구의 주택과 생활시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지역 내 1호 학교였던 돈암초등학교부터 알아보자.



돈암초등학교와 그 주변 모습 (출처: 성북구청)

동소문로13길 38에 위치한 돈암초등학교는 돈암지구 개발 당시인 1939년 도시 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되었다. 1944년 '돈암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여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이곳은 미군들이 지어준 건물이 깡통을 엎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여 '깡통학교'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학교 주변에는 쪽방촌이 모인 좁은 골목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뒤편으로 높은 아파트들이 눈에 띈다.

돈암초등학교 인근 언덕 위 동소문로3길에 위치한 돈암장(敦岩莊)은 3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한식 목조 팔작지붕 주택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5년 미국에서 귀국 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거주한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大木匠) 배희한(裵喜漢)이 지은 이 집은 쇠못을 전혀 쓰지 않고 700여 평 규모를 나무를 짜서 지었으며 표준화된 'ㄱ'자나 'ㄷ'자 형태의 일반 도시 한옥이 아닌 궁궐을 모델로 한 대규모 주택이라는 가치도 가지고 있어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돈암장에서 성북천을 가로질러 오면 경동고등학교 건물 입구가 보인다. 보문로29길 49에 위치한 이 학교의 역사는 돈암지구 내에 교육시설을 확충하며 경성의 5번째 남자 중학교로 설립된 욱구공립중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욱구공립중학교는 기존의 조선인 학교(경기, 경복), 일본인 학교(경성, 용산)과 다르게 '내선 공학'으로 학생 비율을 5:5로 맞추었다.

경동고등학교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마주할 수 있는 보문로 일대도 얼마 전까지는 한옥이 즐



돈암장 (출처: 문화재청)



경동고등학교



보문동 2층 한옥

비한 지역이었다.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 그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개발 전까지만 해도 보문로를 따라 걸어보면 지상 2층의 상가용 한옥들이 여럿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은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점포주택으로 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책임지는 용도로 지어졌다. 상가로 사용되는 일자형 한옥 뒤쪽에 'ㄱ'자로 된 주거용 단층 한옥을 두어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을 이룬 모습이다. 보문로를 따라가는 간선도로변에는 2층 이하 건축 금지 조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러한 2층 건물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제는 처음에 돈암지구를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로 구상하였다. 1941년에는 돈암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전차가 돈암정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는 일본인들의 유입은 미미하여 주로 조선인 중산층의 신도시로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일식 건물보다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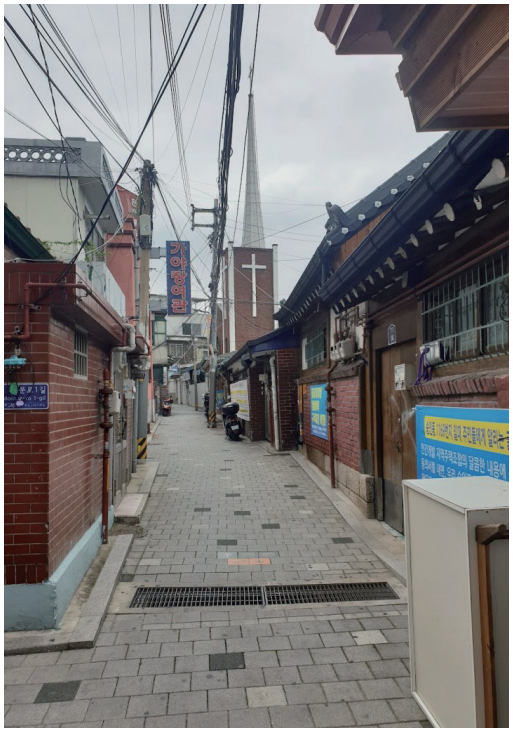
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한성대입구역 부근, 동소문동 일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지어진 한옥 중 몇몇 곳은 한옥에서 기피하는 북쪽으로 대문이 나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이곳을 한옥 신도시로 구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사대문(四大門) 안처럼 남북도로를 기반으로 하여 동서 방향으로 대문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한옥단지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동서도로를 기반으로 한 블록 구성으로 북쪽으로 대문이 날 수밖에 없는 필지 구조였다. 하지만 실제 주택 수요에서는 조선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정하여 대문이 남쪽과 동쪽으로 나도록 바꾸었다. 또한, 필지의 규모를 다시 분할하여 최소한의 'ㄷ'자형 한옥이 들어설 수 있는 독특한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 거리의 한옥들은 현재 치과와 레트로 카페 등 다양한 상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성북천 주변을 필두로 돈암지구 곳곳은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익선동 한옥마을이나 북촌 한옥마을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최초의 도성 밖 한옥 신도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돈암지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가 된다. 지역 내 가치있는 건물들을 잘 보존하면서, 과거의 유물과 미래의 자산들이 함께 조화되어 개발되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본다.



보문동1가 한옥밀집지역 철거, 2019년



동소문로 일대 한옥

[참고자료]
성북마을아카이브
서울역사박물관, 2022, 『돈암, 도성 밖 신도시』, 서울역사박물관
이경아, 2019, 『경성의 주택지』, 도서출판 집

지적도로 본 성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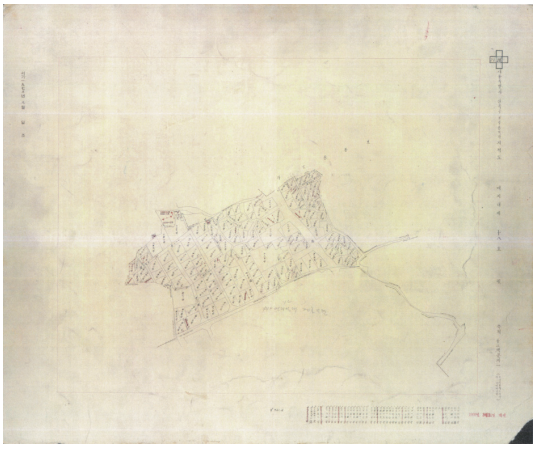
글 : 염현주(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지적도 제공 : 성북구청 지적과

지적도(地籍圖)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나타낸 도면으로, 1910~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최초로 작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일제 잔재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지도들이 그렇듯이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기록물이기도 하다. 또한, 1:500~2,400 수준의 대축척지도로 좁은 지역을 나타냈기에, 다른 시기에 제작된 동일 지역의 지적도와 비교하면, 마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지금부터 마을기록의 일종인 지적도를 통해 성북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제강점기 도시 개발을 논할 때 '돈암지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20년대 들어 경성(서울)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총독부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1936~1941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지금의 돈암동만이 아니라, 보문동·동소문동·동선동·삼선동·안암동 일대가 해당된다. 일제는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를 매입, 이미 거주하던 빈민들을 몰아내고 대규모 주거지와 시가지를 조성하였다.



옛 신설리 216번지 일대, 1936년 이전



보문동6가, 1975



안암동1가 한옥밀집지구, 1976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당시에 지은 도시형 한옥들이 지금까지도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보문동 한옥밀집지역의 지적도를 먼저 보겠다. 보문동이 신설리에 속했던 1936년 이전은 구획정리가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로 필지의 크기와 모양이 아직 제각각이다. 동일 지역인 보문동6가의 1975년 지적도를 보면 필지의 크기와 모양이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 멸실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안암동 한옥밀집지역의 지적도에도 일정하고 반듯한 모양으로 군락을 이룬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안암동 1·2가, 1950~60년대

다음은 성북동으로 이동해보자. 여전히 성북천이 흐르는 1990년대의 성북동 지적도에서 일제강점기 지적도와 확연히 다른 점이 발견된다. 일제강점기 지적도에서 중앙에 '산(山)'으로 표기되었던 넓은 면적의 땅이 이후 시기에는 촘촘하게 구획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북동 226번지 일대가 바로 북정마을이다. 6.25전쟁 이후 이주민들이 언덕을 깎고 돋우며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였다. 한양도성 성벽 및 구릉지 지형과 일체화된 독특한 마을 경관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성북동 일대, 일제강점기(1962년 폐쇄 지적)



성북동 일대,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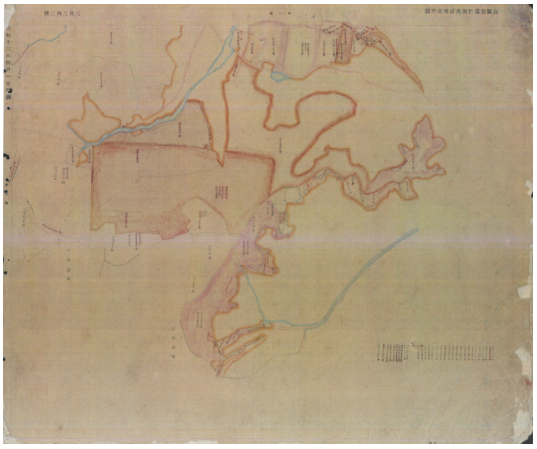
북정마을 전경, 2016 (출처: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이번에는 장위동에서 서울미래유산을 찾아보자. 장위동 230-49번지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은 1980년대 한국의 중산층 주택이라는 건축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2017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본래 이 집은 1966년 동방생명보험회사(현 삼성생명)가 장위동에 택지를 조성하여 1970년에 건축되었는데, 노후화가 진행되자 1986년 건축가 김중업의 리모델링을 거쳐 성북구에서 매입하였다.

장위동 230-49의 옛 지번은 산3-93이다. 임야로 등록되었던 이 일대는 1960년대 동방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단독주택이 대거 지어졌다. 1968년 지적도를 보면 작은 택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방생명 10년사』(1967)에 따르면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총면적은 162,170평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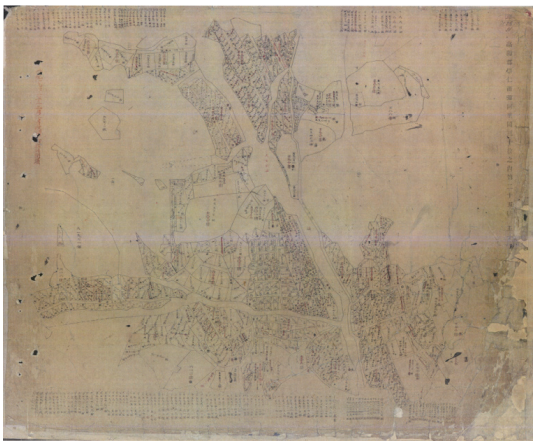
장위동 230-49 주택(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2019



구 장위동 산3번지 일대, 1938



장위동 230-49번지 일대, 1968



구 길음동 603-2 일대, 1962

현재는 복개되어 만나볼 수 없는 인수천도 지적도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1962년 길음동 지적도에서 중앙과 좌측 하단이 연결되어 '천(川)'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북한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길음동을 거쳐 정릉천에 합류했던 개천, 즉 인수천이다. 당시 천변을 따라 노점이 형성되어 길음시장까지 이어졌다고도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복개공사가 시작되어 지금은 도로(길음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적도에서도 지번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구획된 모습인데 2000년대 들어 이 일대는 뉴타운으로 재개발되고 2016년에는 명동에 있던 계성고등학교가 이전하였다.

주로 부동산 관련 문서로 여겨졌던 지적도를 마을기록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다. 10년 후, 20년 후, 종이 위에 그려진 성북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인수로(현 길음로) 전경, 2009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계성고등학교, 2020



기록으로 보는 성북구의 수해 극복기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당시 동작구 기상청 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수량은 381.5㎜. 우리나라 8월 평균 강수량이 약 300㎜라고 하니 한 달 동안 올 비가 하루 안에 쏟아진 셈이다. 이처럼 큰비가 휩쓸고 간 자리를 수습하려면 때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성북구의 수해복구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다. 특히 전쟁 직후였던 1950년대에는 재해 예방 시설의 부족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우로 한강이 범람하면 서울 시내의 교통이 마비되고, 수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당시 중앙정부는 판잣집 철거 이재민 구호사업, 난민 정착 사업, 구호양곡 배부 등의 구호 활동을 벌였고, 미아리는 이러한 난민과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표적인 난민정착촌이었다.

1958년 보건사회부는 1,200호의 주택을 지어 9,400여 명의 수해 이재민을 입주시킬 계획을 세운다. 시유지였던 미아리 공동묘지를 망우리 등으로 이전하고 그 부근에 택지 조성을 계획한 것이다. 주택이 마련될 동안 이재민들은 미8군과 군에서 대여받은 천막을 이용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고, 정부는 미아리지구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식'을 열기도 하였다.



1958년 미아리지구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식(출처: 서울기록원)



彌阿里公地조
정工事에動員
二村洞水災民를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이 미아리 공동묘지 근처에 지어진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인해 서울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 번의 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졌다. 1960년대에는 집중호우와 폭우 · 가뭄에 의한 피해가 잦았는데 이때 서울의 배수시설은 아직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1966년은 당시 서울에 비가 가장 많이 온 해로 한강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도시 이곳저곳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오른쪽의 사진들은 1966년 수해를 입은 종암동 일대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을 보면 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의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간할 수 없고, 주택 사이사이 담장과 벽은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종암동에서 장위동에 이르는 도로의 경우 가슴까지 올라오는 물을 헤엄치다시피 건너야 했을 만큼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한다. 버스도 운행을 멈춰 장위동 주민들은 폭우 속을 걸어가야만 했고, 정릉의 주민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헤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 여간 큰 수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서울시는 장마 피해를 본 47개 지역에 대한 수해 복구사업을 일제히 착수하였고,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의 하나로 답십리, 홍릉, 종암동 지역 하수도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때 종암동 하수도 공사는 숭례국민학교(현 숭례초등학교) 앞에 길이 1,700m의 토관을 묻고 펌프 5개를 가설하는 상당히 큰 공사였다.



1966년 종암동 수해지역 모습(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1966년 종암동 수해지역 모습(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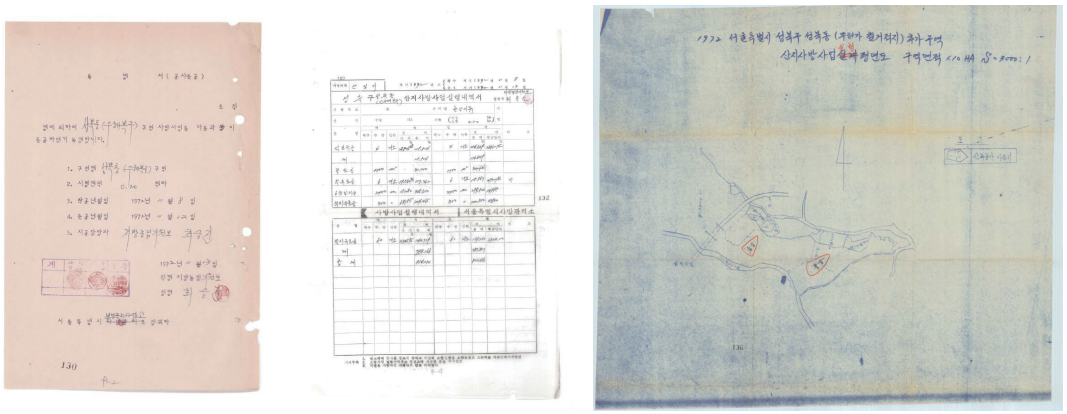


1969년 수해 지역 방역 모습(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1969년 수해 지역 방역 모습(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이런 수해가 있을 때마다 빠질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방역이다. 장마철의 덥고 습한 날씨는 곰팡이나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때 하천 범람이나 침수가 발생하면 각종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창궐하기 쉽다. 장마 후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염병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소독을 비롯한 우물 소독 · 청소작업 등을 벌였다. 여름철이면 소독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 곳곳을 돌아다닌 것도 이 때문이다. 소독차를 이용한 연막 소독은 2000



1972년 수해복구사업실시(성북구성북동구역) 관련 자료(출처: 서울기록원)



1967년 미아리 지역 수해 복구 현장(출처: 서울기록원)

년대 초까지 흔히 사용된 방역 방법이었으니 1990년대 이전 출생자라면 소독차와 관련된 어린 시절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폭우가 내릴 때 또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산사태이다. 성북구는 북악산과 북한산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큰비가 내릴 때는 토사가 낮은 지대로 흘러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곳이다. 1972년 8월 18~19일 이틀간 서울에는 450.6㎜의 비가 쏟아졌다. 서울에 관측대가 생긴 이래로 종전의 기록을 모두 경신하는 큰비가 내린 후 성북동에서는 수해 복구 구역에 대한 사방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 실행 내역서를 보면 삼청터널 아래 지금의 성북로 31가길 일대로 추정되는 곳에 흙비탈면이 무너지지 않게 석보곡공, 정도곡, 석유토공 등등의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재난에 대해 국가가 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작은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낡은 흑백사진 속 러닝셔츠 차림으로 토사물을 묵묵히 치우는 사람, 긴 장마 후 훼손된 산을 정비하기 위해 흙덮기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가슴 속 따듯한 울림이 된다. 결국 우리를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은 이런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힘을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재해들



1996년 장마 이후 훼손된 북한산에서 흙덮기 활동을 한 성북구 자연환경보호 단체연합 회원들의 모습(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2001년 종암동 수해지구 복구현장(출처: 성북구청)

을 마주할 것이다. 그때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라본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서울재해사』, 경인문화사
경향신문,「변두리는 서울특별시가 아닌가」, 1966.07.18.
조선일보,「답십리 등 하수도공사 착수」, 1966.07.29.

이태준의『장마』와 성북동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우리나라의 여름은 보통 장마를 동반한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폭염이었지만 서울경기지방은 많은 비가 내렸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대체로 6월 하순에 시작하여 7월 하순에 끝나며, 그 시작일과 종료일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장마철에는 우리나라 1년 치 강수량의 약 3분의 1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물걱정을 덜게 되고 습도가 높아져 미세먼지와 산불 걱정도 사라진다. 그러나 지나치면 강이나 호수 등이 범람하고,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있다.

'장마'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다. 바로 1933년 구인회(九人會)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39년에는 순수문예지『문장(文章)』을 주관한 이태준(李泰俊, 1905-?)의 단편소설『장마』이다.

이태준은 성북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1933년 성북구 성북로26길 8에 '수연산방(壽硯山房)'이란 당호를 붙이고 1946년까지 거주했다.



이태준과 그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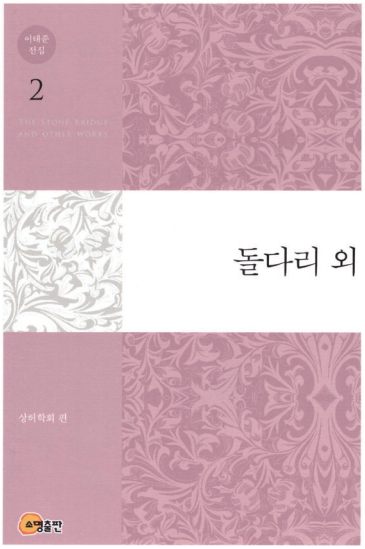
이태준(1905~?)





수연산방 전경

그는 이곳에서 『달밤』(1933), 『손거부』(1941), 『돌다리』(1943) 등의 단편과 『황진이』(1936), 『왕자호동』(1943) 등의 장편을 남기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 당연히 1936년 작품인 장마도 성북동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이태준 전집2 표지, 소명출판

이태준의 장마는 1936년 10월에 『조광(朝光)』에 발표한 소설이다. 성북동에 사는 주인공은 장마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고, 이에 집을 나선 주인공이 외출을 하면서 생기는 일상의 이야기가 소설의 주된 골자이다. 우선 성북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집을 나선다. 포도원 앞쯤 내려오면 늘 나는 생각, '버스가 이 돌다리까지 들어왔으면'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면서 개울물을 내려다본다. 여러 날째 씻겨 내려간 개울이라 양치질을 하여도 좋게 물이 맑다."

위 문장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성북천에 돌다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쌍다리'라고 불리는 곳은 본래 목조다리와 석조다리가 각각 하나씩 있었기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장마로 인해서 개울이 맑아졌다는 것은 성북천의 물이 항상 맑지만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 쌍다리 부근에는 마을버스와 지선버스가 다니고 있으나, 1930년대 후반의 성북동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고 삼선교(현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까지 나가야 버스가 다녔다. 주인공이 돌다리까지 버스개통을 바란 것은 이 때문이다.

"아내는 성북동(城北洞)으로 처음 나와 볼 때, 왜 그때 이렇게 산보하기 좋은 데를 몰랐느냐고 나를 비웃었고, 소설을 쓰되 연애소설은 쓸 자격이 없겠다 하였다. 나의 변명은 그때 우리는 연애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이태준이 소설을 쓸 당시 수연산방에 있었고, 실제로 주변으로 산보하기 좋았던 현실을 소설로 표현한 부분이다. 지금도 성북동은 다양한 맛집과 카페가 많이 들어서 있고,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되어있어 산책과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그래도 소설 제목이 장마인데, 장마와 관련된 내용을 빼놓을 수 없다.

"등의자도 삶아낸 것처럼 눅눅하다. 적삼고름으로 팔 놓은 데를 쓱 문대 보니 송충이나 꿰뚫



쌍다리식당 앞 도로

은 것처럼 곰팡이와 때가 시퍼렇고 시커멓게 묻어난다.”

“요즘 두 주일 동안은 비에 갇혀 내가 나가지 못한 때문인지 공연히 말다툼이 잦았다.”

“비는 어쩌면 그칠 듯하다. 나는 마루 밑에서 구두를 꺼냈다. 안팎으로 곰팡이가 파랗게 피었다. …(중략)… 곰팡이가 식물이던가? 동물이건가?”

“비는 다시 뿌린다. 나만은 뽀얗게 운무 속에 들어 있다.”

“멀리 쳐다보이는 것은 비에 젖은 북한산이다.”

“성북동 쪽 산들은 그저 뽀얀 이슬비 속에 잠겨 있다.”

인용한 소설 속 문구 이외에도 소설『장마』에는 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특히 위 내용에서 장마 기간임을 알려주는 건 바로 곰팡이이다. 장마가 오면 이전보다 습도는 많이 올라가고 온도는 많이 내려가지 않아 곰팡이가 여기저기에 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태준의 소설『장마』에 나타나는 성북동의 모습과 장마 관련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 속담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다. 가뭄보다 장마의 피해가 크다는 경험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수 때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장마가 한 국민의 환경 지각에 얼마나 깊이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세해지므로 더위가 한층 심화되고 습도까지 높은 날씨가 계속되어 짜증나는 날씨가 지속된다.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열대야도 시작된다. 이럴수록 미리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온습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장마철에 나타나는 식중독, 무좀, 우울증 등이 안 걸리게 건강관리도 필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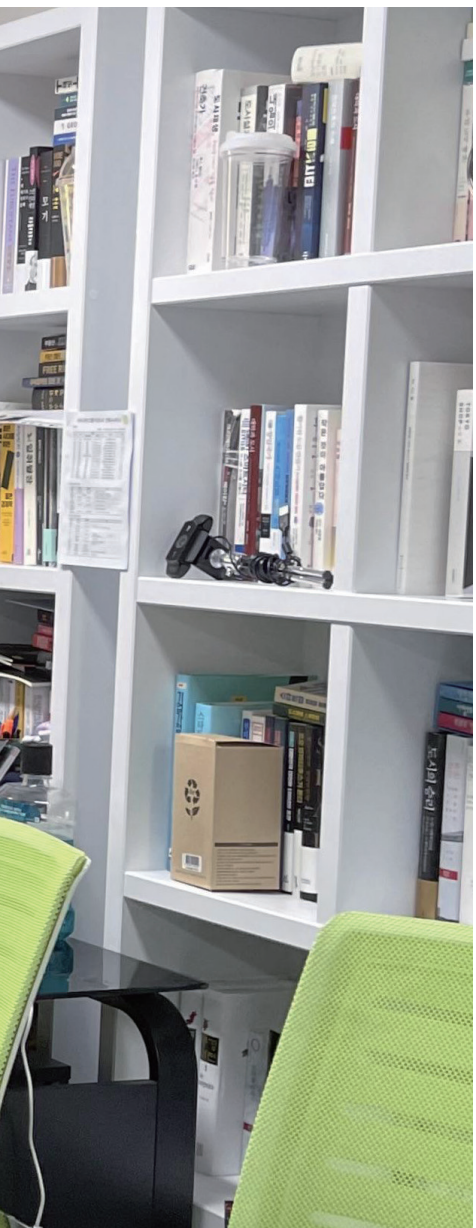
[참고문헌]
성북마을아카이브,「이태준」
이태준 지음, 상허학회 편, 2015,『돌다리 외』, 소명출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마」

성북 인물 초대석 1

소통하고 공존하는 마을을 꿈꾸는 건축가



이상훈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 진행 : 이소희(성북문화원 생활사 기록가)
인터뷰 정리 : 우성진(성북문화원)

디자인그룹 이상도시건축사무소 이상훈 대표는 '369마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그만두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도시계획및설계 연구실에서 수학할 때, 삼선6구역의 재개발해제 대안연구를 비롯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도시계획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369마을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마을주민으로서, 마을건축가로서, 마을 내 소통창구로서 369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 질문했다.

(본 인터뷰는 2022년 성북문화원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성북문화원 생활사 기록가 이소희 님이 2022년 9월 25일 성북동 디자인그룹 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구술자료를 정리했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상훈 대표라고 합니다. 1976년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창시절을 쭉 대구에서 보내다 2008년에 직장을 서울로 잡아 올라오게 된 이후 계속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4년에 '이상도시 디자인연구소'(현재 디자인그룹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를 창업하게 되면서 369마을을 만나게 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Q. 369마을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A. 369마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한양도성 성곽마을입니다. 원래 이 구역이 재개발이 추진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서울시 마을만들기 학생 공모전'에서 입선하고, 주민들 동의로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삼선동 11-5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1004길의 도로명을 따서 "천사마을"이라 임의로 불렀었는데, 삼선6구역의 앞글자를 따서 쉽게 부르자는 주민분의 아이디어로 2015년부터 "369마을"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선6구역이 '커뮤니티 디자인'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했으면 했어요.
2000년대 후반에 많은 마을들이 재개발의 후유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마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을 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업적 접근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들끼리 공감을 이루어내고 조직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즉 공동체를 만드는 구조의 마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Q. 369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자세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삼선6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전체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해 해제된 후, 그에 대한 대안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마을만들기 학생 공모전'에 저희가 연구생들이 참여를 했고, 입상해서 그것을 계기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 것이죠. 이를 통해 2014년 12월부터 369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계획수립 용역을 이상도시 디자인연구소에서 맡아서 착수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Q. 당시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A. 그 당시 저는 기존에 진행되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모니터링해 보면서, 삼선6구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모델을 기반하여 추진하여 지역자산화를 기반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구하는 꿈을 꿨었어요. 2010년즈음부터 재개발에서 소

외된 마을들이 그 출구전략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부분 물리적 환경정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을 우선시하였고 그 사업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오해 등 아쉬운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들끼리 공감과 신뢰를 일궈내고 조직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역자산화를 지향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행사업을 이끌어내고 마을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브랜드를 일궈내고 그것을 지역에 환원되는 순환형 경제생태계, 그 개념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봤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죠.

Q. 369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신 것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369마을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마을 내 모든 주호, 300가구를 방문하고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즉, 지역 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관계를 맺고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모더니즘의 정형화된 아파트와 반대로 저층주거지 중심의 마을 미래상은 지속성을 담보하고, 삶의 문화를 담아내는 인본적인 삶터이길 꿈꿔봤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삶의 터전을 한번 구현해보자고 생각한 거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공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공존하며 삶의 문화를 담아내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저층 주거지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환경으로 말하자면 한성대입구역이라 역세권이고 바로 밑에는 개천이 흐르고, 위에는 오롯이 성곽길이 있고, 성곽길은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봄, 가을에 느껴보면 정말 풍류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을에 담아서 정체성을 만들어 삶터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Q. 삶의 터를 만들어가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2015년 5월에 과감하게 369마을로 이사온 거죠, 서울에 이런 고즈넉한 마을에 살아가면서 마을 내 홍반장 같은 느낌으로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2014년에 학생 공모전으로 워밍업을 했다면, 2015년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적용해서 첫 번째는 공감대를 통한 지역 중심의 경제활동 조직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조



369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다채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역 자산화를 일궈내고,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공감대 형성이 8개월 정도 걸렸어요. 369마을이 300가구쯤 있는데 세입자든 건물주든 한 건물에 한 명씩은 만나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받고, 제가 추진하고픈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조직 내 역량 강화를 통해 2015년 가을에 369마을 어귀에서 최초의 369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서 마을의 구성원들과 인연을 돈독히 하고, 인근의 예술활동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을 연계한 성곽마을이라는 정체성과 이런 사연들을 엮어서 마을에 문화를 담아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2017년까지 이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 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공감하며, 노후화된 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는 등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이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Q. 마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A . 2018년 연말부터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직화를 통해서 "369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과 그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만한 주체들 간의 연결을 하는



369마을 공작소

> *369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과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만한 주체들 간의 연결을 하는 369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조직했어요. 2019년에 본격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네 개의 앵커 시설을 서울시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해보고 있는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369 마을이 지속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자족화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로 조직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네 개의 앵커 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해보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369마을이 지속적이고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지역자산화를 구현해가고 있는 초석을 다져봅니다. 또한, 성곽마을과 연계한 지역 기반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일궈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즉,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실행주체를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 자산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밀착형 로컬 콘텐츠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의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이것으로 생산되는 것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순환형 경제생태계를 일궈나가는 것이겠죠. 아까 말한 3단계 중 2단계 정도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369마을은 현재, 369예술공방과 369예술터를 중심으로 "369성곽여가 : 풍류" 그리고 "369성곽여가 : 머물다"의 성곽마을를 기반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채롭게 시도하고 있으며, 369사랑방과 369마실에서는 369식당과 369까페를 운영하면서 가베와 성곽돌쿠키, 369청귤청 등 369특산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369청년 예술상점"과 "369 성곽버스킹" 등을 통한 MZ세대들의 취향과 결합한 369성곽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Q.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나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A. 2020년부터 코로나가 와서 2년간 엄청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369성곽여가 : 풍류'라 명명하고, 주말 오후에 369마실 앞에서 버스킹공연을 기획했었는데, 코로나 직후에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기획한 행사나 활동들이 많이 어그러졌죠. 이 시기를 극복하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작가와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펀딩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주민 한마당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다시 예전처럼 여러 프로그램과 상점 운영 등을 시작해야겠죠.



369성곽여가 : 풍류

Q. 369마을 사업을 하면서 경험한 스스로의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많이 바뀌었죠. 우스갯소리로 제 이름을 풀어보면 커뮤니티 컨설턴트더라고요. 서로 상(相)에, 공 훈(勳)자. 서로 공을 함께 세우다.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잖아요. 돌아보면 몇 년간 더불어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거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과 지역중심의 공생하는 경제공동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름도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유토피아라고 지은 것이 평생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그런 공간을 구현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10년을 보면 제가 진짜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사람 중심,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 기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누군가의 목표가 빨리 돈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신하며, 지역과 교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계기가 369마을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거죠. 369마을은 저에겐 제2의 고향이고 평생 함께 살고픈 삶터로 자리매김하였네요.

Q. 건축가로서의 가치관의 변화도 있었을까요?

A. 제가 건축을 한창 배울 때는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건축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방황이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로컬리스트(localist)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음은 라이피즘(lifism)을 얘기해야 하지 않나. 생존과 회복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건축활동에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그것을 일구어내는 가교자 역할, 지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역할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교감하고 함께 동행하는 마을 건축가, 지역을 탐구하여 공간을 변화시켜

삶의 문화를 구현해가는 지역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네요. 후배 건축가들도 이런 것도 도전해보자고 권유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Q. 그럼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A. 아까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자본주의에 얽매여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앞으로도 지역과 교감하면서 삶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지역과 공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고민해야 해요. 진중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본적인 생각으로 소통하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교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인재상을 인본적으로 지역을 탐구하고 교감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혁신가로 지향해보고 있어요. 자본논리에 의한 성과를 일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지역 내 순환형경제 생태계를 구현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시건축 전문가로 끊임없이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에게도 저의 삶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그룹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성북 인물 초대석 2

더 나은 성북을 향한 투지

고윤근 전 성북구의회 의장을 만나다

인터뷰 진행 : 최주연(성북문화원 생활사 기록가)
인터뷰 정리 : 백외준(성북문화원)

고윤근 님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베트남전쟁 참전 후 1969년 서울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주한 이래 길음동, 정릉동 등지에서 거주해왔다.

젊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조직인 연청 활동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995년 제2대 성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3대 하반기 성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구의원 활동 기간 개운산 배드민턴장 정비사업, 길음동 가스배관 정비, 성북구립합창단 창단 등을 주도했다.

(본 인터뷰는 2022년 성북문화원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성북문화원 생활사 기록가 최주연 님이 2022년 9월 7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릉4동 고윤근 님의 자택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구술자료를 정리했다.)



길음동(1995). 고윤근 님은 상경 후 길음동 산동네에서 청년시절을 보냈다.(출처: 서울연구원)



개운산에 있는 성북구의회 청사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성북구 특히 길음동의 변화를 온몸으로 통과한 고윤근 님은 거주지로서의 성북구를 정치활동의 무대로 넓혔다. 민주화운동에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구의회 의원 활동과 구의회 의장 활동으로 성북구의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다양한 성북구 주민들과 교류하며 그들 삶의 여건을 바꾸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들은 개인으로서의 기록은 물론 성북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탄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Q. 먼저 고향과 유년 시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제 고향 동네는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곡하마을입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300호나 모여 사는 엄청나게 큰 동네였습니다. 앞에 바다를 산이 약간 가리고 산이 멀리 휘둘러싼 양지바른 곳입니다. 바다가 가까워서 바닷가에 자주 나가서 꼬막, 문저리, 짱뚱어도 많이 잡고 놀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남도창(南道唱)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지역 저 지역 다니시면서 창을 해서 그것으로 저희 가족이 근근이 먹고 살았죠. 할아버지는 상여 앞소리를 잘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상여 앞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울고, 그냥 눈물로 뒤범벅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재능이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순천사범병설중학교

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1 독립선언서를 외워서 학교 연단에서 막 외치고 그런 걸 보고는 "쟤는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해서 교육도시 순천으로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셨죠.

Q. 서울에 오신 후 길음동에 오래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1970~80년대 길음동은 어떤 곳이었나요?

A. 저는 군생활 동안 베트남 전쟁[1]에 파병돼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와서 길음동에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게 1969년입니다. 길음동 산 75번지 달동네였습니다. 길음동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네였어요.

당시 길음동 달동네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집안에 변소도 없어서 공중변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침에 변소 가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새치기를 해야 됐고 그럴 정도로 힘든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얼마 살다가 길음2동 쪽으로 이사왔는데 지금 미아초등학교 저 위 끄트머리 동네였습니다. 그 집은 덕석 그러니까 가마니로 입구를 가려놓은 그런 집이었어요. 당시 길음동에는 그렇게 움막처럼 만들어놓고 사는 집이 많았어요. 그리고 꼭대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슬레이트집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랬죠.

"당시 길음동 달동네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집안에 변소도 없어서 공중변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침에 변소 가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새치기를 할 정도로 힘든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얼마 살다가 길음2동 쪽으로 이사왔는데 지금 미아초등학교 저 위 끄트머리 동네였습니다. 그 집은 덕석 그러니까 가마니로 입구를 가려놓은 그런 집이었어요. 당시 길음동에는 그렇게 움막처럼 만들어놓고 사는 집이 많았어요. 꼭대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슬레이트집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랬죠.

길음동에 좁은 골목이 많았는데 한 가지 소문난 말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인데다가 말 그대로 뻘땅이어서 아주 질척거렸어요. 그리고 길옆으로 조그마한 실개천이 있었는데 길에 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술 먹고 걸어가다가 개천으로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온통 똥물을 뒤집어썼더라구요. 또 산 위쪽에서는 비가 올 때 개천에다가 똥을 퍼붓기도 해서 개천이 말도 못하게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길음동에는 지방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살았는데 주로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

1 베트남 전쟁: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 (1960~1975).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과정에서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고윤근 전 성북구의회 의장

니다. 왜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봐도 남자들은 중앙시장에서 엿장사를 했고, 여자들은 올라가면 버스차장 아니면 미싱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여동생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미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던 집 번지 중에 길음동 608번지의 36호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너무 한이 맺혔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그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집을, 좀 방이 큰 걸 사서 사는 게 원이었어요. '우리 한 번 모아보자.'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형제간 조카 애들이 다 올라와 버렸어요. 저 고향의 사돈의 팔촌에. 그냥 다 올라오니까, 지금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밥 다 해주고 그냥 재워주고 집이 넓어지니까. 그때는 소원이 누구나 다 큰 방을 원했어요, 다들. 그러고 그냥 그 큰 집에 그냥 널찍한 집에 사니까 부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고윤근이 서울 가서 막 돈 벌었다.'면서 가서 인사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해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배우고 해서 근방으로 많이 공장으로 취업이 됐어요.

Q. 젊은 시절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이하 연청)[2] 활동하게 된 계기와 기억나는 일화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A. 연청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내 젊을 때 한 맺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억울하게 베트남 전쟁 차출이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했어요. 정부도 힘없는 백성을 너무나 괴롭히는구나 생각했어요. 박정희 정권을 내가 싫어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모임 장소에 가서 얼굴 내밀고 이러다 보니까 연청 성북구 회장도 하게 된 거죠. 장안예식장[3]에서 크게 발대식을 했어요. 내가 연청 창립 멤버죠. 연청 활동 중에 기억 남는 것은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추모식이예요. 근데 거기가 인산인해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최루탄 가스가 세계에서 제일로 독하대요. 그 최루탄을 얼마나 쏴대던지. 그때가 여름인데 더욱 죽겠고 땀을 비오듯 흘리는데 최루탄을 맞으니까 그냥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꼭 선두에 가 설려고 했지, 뒤로 빠지지를 않았어요. 내가 만장기를 들었고 나중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도 부르면서 행진했어요. 이제 김대중 씨가 그걸 보러 왔다가 최루탄 가스를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쫓아가서 포니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붙들어놓고 김대중 씨를 끌고 와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내가 제일로 힘들었어요. 데모한다고 몇 번 경찰서에도 불려갔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내가 딱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이 성북경찰서 형사과 이런 데 가보면은 경찰의 반 이상이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많이 봐주었던 같아요.

Q.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제2대, 3대 구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구의원으로 계시면서 이룩한 성과나 구정에 기여한 바를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A.

▶ 배드민턴장 철거

1990년대 배드민턴장이 유행했어요. 동네마다 여기저기 배드민턴 클럽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 때마다 산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정릉, 개운산, 석관동 할 것 없었어요. 코트 하나 만들고 땅을 다지려면 소금이 3~5가마는 들어가요. 그러면 옆에 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코트 옆에 굴을 파서 그릇, 반찬 가져다놓고 술 먹고 노는 그런 행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배드민턴 코트가 300개 정도 되니까 150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회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까지 쫓아와서 "니가 뭐냐

2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약칭 연청. 연청은 19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청년전위조직이다. 전국에 300여개 지부를 두고 있다.

3 장안예식장: 1976년 미아사거리에 개업한 예식장. 2010년대에 폐업하고 현재 옛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파가지고 배관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가스배관 만큼은 1m 이상은 파서 설치해야 하는데 50㎝도 안 되게 설치해 놓은 곳도 많아요. 나중에 터지면 얼마나 인명피해가 있을까 생각하니 내 가슴이 딱 막히더라고. 그래서 길음동 가스백관 정비를 추진한 거예요. 길음동에서 기어코 그걸 해냈지요.

고, 구의원이 뭐 안다고 그걸 갖다 그러냐?" 하면서 막 나한테 그냥 막 삿대질하고 달려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나중에 하고 나면 다 알 겁니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 안 보려고, 볼 때마다 항의를 받으니까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 '고개 숙인 남자'로 돼 버렸어요.

▶ 구의회청사 신축

구의회가 처음 발족했을 때는 구민회관을 구의회 건물로 썼어요. 이후에 진영호[4] 구청장 때 개운산 구유지에다 의회 건물을 짓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때 내가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 공사 과정을 담당했어요. 그때 구의회 정면 방향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남향으로 해야 한다, 동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향을 보면 개운산에 있는 방공포대 부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의회가 군부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시야가 넓게 트이는 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서 동향으로 하고 종암동, 월곡동 쪽을 바라보게끔 짓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 길음동 가스배관 정비

길음동에 가스 배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비교 시찰이라고 유럽 쪽에 순방을 갔는데 프랑스 파리같은 데는 배관이 지나가는 지하도 벽에 이 선은 전기 배선, 이 선은 가스 배선 이게 다 쓰여 있어서 어디서 뭐가 고장 나면 그것만 딱 고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파가지고 배관이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스배관 만큼은 1m 이상은 파서 설치해야 하는데 50㎝도 안 되게 설치해 놓은 곳도 많아요. 그게 나중에 터지는 날이면 얼마나 인명피해가 있을까 생각하니 내 가슴이 딱 막히더라고. 그래서 일본도 갔다오고 한 후에 길음동 가스배관 정비를 추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스회사에서 막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가보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하지만 길음동에서 기어코 그걸 해냈어요.

4 진영호: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민선 1, 2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예요.
길음역, 월곡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제일 먼저 교통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내가 운영위원장 할 때니까 한 1998년도나 1999년도였을 겁니다. 이제 '1인 1PC' 시대가 됐는데 왜 전자결재를 안 할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줄을 서면서 결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구청 가보면 결재 받는다고 국장이나, 과장들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결재시스템을 전자결재로 바꿔야 한다는 요지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구정질의를 했어요. 성북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 성북구가 서울에서 4번째로 전자결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 성북구립합창단 창단

내가 노래,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CD 음반 하나를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대우 합창단 CD였어요. 조그마한, 녹음 릴레이 테이프 뭐 이런 거였죠. 그걸 넣어서 틀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우 합창단을 알아보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는 대우의 선전을 하고 다니고, 그냥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때 당시 대우가 제일 전성기였던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성북구를 알리려면 우리 성북, 우리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영호 구청장에게 말해가지고 구립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거예요. 내가 창단멤버입니다.

Q. 성북구의 오랜 주민이자 구의원으로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기여를 하셨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북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 성북구는 내가 볼 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시 어디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예요. 길음역, 월곡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제일 먼저 교통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릉천도 더 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에는 있는데 아직 정릉천에는 물탱크가 없어요. 정릉천이 가뭄에는 말라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물탱크가 있으면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모아놨다가 비가 안 올 때 조금씩 내려보내면서 하천을 정화할 수가 있어요. 정릉천 말고도 하천마다 물탱크가 있으면 성북구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2 성북문화 특집 : 성북구의 문화예술인을 만나다

조태권 성북문화원 원장을 만나다

인터뷰 진행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인터뷰 정리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조태권 원장 근영
(사진출처 : 사진작가 준초이)

Part1. 조태권 원장님에 대하여

01. 안녕하세요? 자주 뵙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려니 저도 좀 어색합니다. 제가 2012년 9월에 사무국장에 임용되었으니, 벌써 원장님과의 인연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원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이 많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임기가 다 되어서 퇴임 인터뷰를 한다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원장님과 함께하며 항상 소통을 하였기에 잘 알고 있지만, 원장님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원장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광주요, (주)가온소사이어티, (주)화요 대표이사이자, 제3대 성북문화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태권입니다. (주)광주요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로 1988년 2월, 갑작스런 부친의 타계로 가업을 물려받아 2대 대표로 취임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도자기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그 도자기에 담아낼 한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보편화된 한식을 차려낼 한식당 (주)가온소사이어티의 문을 열고, 우리 음식과 함께 즐길 우리 술 (주)화요가 탄생하며 '한국 식문화 종합 기업' 광주요그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강성봉 국장이 앞서 어색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항상 편하게 격식 없이 직원들과 소통하다가, 이렇게 격식을 차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저도 좀 어색합니다.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임해보겠습니다.

02. 많은 인터뷰를 통해 접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원래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하시다 아버님 사후 어머님의 부탁으로 광주요를 맡게 되셨습니다. 가업이었으니 어린 시절부터 분위기는 알고 계셨겠지만, 사업으로는 생소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맡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우에 입사해서 고(故) 김우중 회장님 밑에서 일하며 사업을 배웠습니다. 승진도 빨라서 초대 그리스 지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중반 그리스에서 개인적 우환을 계기로 독립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이후로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6남매(3남3녀) 중 막내인 제가 유일하게 사업가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며 어머니로부터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갑자기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업을 이어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6남매의 막내로 자라면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속을 정말 많이 썩였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지금의 조태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더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음식(식당) 문화, 주류문화를 세계 명품 대열에 올려 경쟁을 선포하였으니,
주변에서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미쳤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웃음)

더욱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하나의 희망만으로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막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은 공식처럼 선진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음식은 물론 함께 즐기는 주류문화 역시 세계인들의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식문화를 이끌어 가는 엄청난 경제력의 원동력이자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해외로부터 차용해온 중소기업을 거쳐 기계공업·산업화, 자동차산업화, 중공업산업화, 전자산업화 등의 '모방산업' 분야에 40여 년간 신바람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식의주' 관련 문화적 핵심요소에 관해서는 패배주의를 자칭하며 해당 문화를 천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우리 전통도자기는 생활도자기로의 사용할 길이 막히고, 그 가치의 본질이 망각된 채 장롱 속에 방치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음식은 자연히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음식과 어울리는 술 역시 '적당히 즐기는 술'이 아닌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의 수준에 정체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음식(식당) 문화, 주류문화를 세계 명품 대열에 올려 경쟁을 선포하였으니, 주변에서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미쳤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웃음)

그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니, 도자기와 음식 그리고 술은 불가분의 관계로 식당에서의 생활 예법이야말로 그 나라의 문명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재화시키고 나아가 세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파벨리 만찬 같은 것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마지막으로 도자기, 음식, 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식당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준에서 경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식당 '가온'과 '비채나'를 시작한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 가온이 한국의 첫 미쉐린 가이드 진출 당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획득했고, 비채나는 1스타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북촌 한옥 마을에 한옥 문화복합시설 건립 현장을 둘러보는 조태권 원장(사진출처 : 광주요)

03. 도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도자기에 담겨 나오는 음식, 그리고 음식과 함께하는 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장에서 식문화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식당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화요와 가온, 비채나는 모두 그런 원장님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식문화도 점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식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통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만 해도, 고춧가루가 들어온 이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배추의 품종도 달라졌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복만 해도 조선 전기와 후기가 다릅니다. 고구려의 옷과 조선의 옷도 다릅니다.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두어야 할까요? 결국 문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기술과 교류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와 조리 방법을 계승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온과 비채나의 요리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art.2 성북문화원과 조태권 원장님

04. 기록을 찾아보니, 2005년에 처음 성북문화원 등기이사가 되셨습니다. 성북문화원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2011년 원장에 취임하게 된 계기 등을 자세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은 1996년 12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에는 고(故) 구두회 초대 원장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성북문화원의 출연금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2005년, 천신일 회장님이 제2대 원장에 취임하실 때 다시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원장에 취임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천신일 원장님의 임기가 끝날 때 즈음해서 저에게 원장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문화사업이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북동은 제가 오랜 기간 거주했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고심 끝에 문화원장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에 이사님들과 회원님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05. 2011년부터 제3대 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성북문화원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3명에서 15명까지 늘었고, 예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북동문화재야행과 성북마을아카이브 같은 사업도 안착시키셨습니다. 여기에는 원장님의 운영 철학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성북문화원의 운영철학은 무엇이었나요?

제 철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뜻을 펼칠 수 있는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문화를 만들겠다는 꿈, 성북문화원을 최고의 문화원으로 만들겠다는 꿈, 이런 꿈들이 있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꿈은 혼자 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같은 꿈을 갖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통도 중요한 철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성북구가 성북구다울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울 수 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자료를 찾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지금은 지역학이라고 불리지만 당시에 향토사팀을 만든 것도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카이브 사업도 그런 생각의 연장에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가 정리되어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기초 다지기'를 토대로 정체성 만들기를 시작하자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와 공유'입니다. 다시 말해 '찾아오게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

들어 놓고 찾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만들어 놓았지만 지역에 찾아오지 않으면 역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성북동문화재야행'을 하고, '뮤지컬 심우'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마을아카이브 사이트를 만든 것은 이러한 '향유'와 '공유'의 일환입니다.

네 번째는 '투자'입니다. 문화는 선투자(先投資)라고 생각합니다. 선투자가 있어야 결과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꼭 성북문화원 원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제 사업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식 세계화를 위해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사님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나중에는 주민들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제가 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룬 업적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님들과 감사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강성봉 사무국장을 필두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루어 낸 일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일일이 신경 쓰고 지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방향을 제시하고, 철학을 공유해주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직원들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갔고, 또 그러면서 서로 간의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일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2019년 성북동문화재 야행 개막식



성북문화원 명사 초청 역사문화특강, 2013

06. 원장님은 세계를 무대로 두고 문화 사업을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자기, 음식, 술, 식당은 단순히 공산품이 아니라 문화이기도 하니까요. 한편 성북문화원과 같은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원장님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지역문화의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K-컬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기생충》은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BTS는 빌보드에서 1위를 몇 번이나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화들에 서구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인 무엇인가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한식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뿌리가 바로 지역입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친 글로컬(Glocal)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그런 색다른 경험의 소재는 바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체성은 남과의 다른 나만의 무엇입니다. 그러니 정체성이야말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의미합니다. 지역문화야말로 이 다름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의 모태입니다.
그 모태 위에서 더 높고, 멀리 보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문화의 가능성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처럼 우리는 모두 역사라는 거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에 거인보다 더 멀고 높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의 모태입니다. 그 모태 위에서 더 높고, 멀리 보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문화의 가능성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은 12년의 임기, 원장 직무대행까지 하면 14년, 이사부터 시작하시면 17년을 성북문화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 많아 한 가지를 꼽기가 어렵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고택인 심우장에서 70주기 다례재를 하던 순간도 기억이 나고, 2017년 처음 성북동문화재야행을 하면서 성북동 밤거리가 환하게 밝혀지던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2019년에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이트가 열리던 것도 생생합니다. 이육사 선생님 따님인 이옥비 여사님이 찾아와서 만들어진, 이육사 탄생 기념행사도 뜻깊었습니다. 그때 여사님 만나 뵙고, 여사님이 하시던 말씀을 들으면서, 국가와 민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아. 직원들과 비 오는 날 막걸리 한잔하면서 문화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던 순간도 떠오르네요. 그러다 제가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 일 이야기 할 때보다 더 재밌게 듣더군요! (웃음)

Part3. 마무리

08.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성북문화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원장님께 드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가 맡아서 하시던, 성북문화원을 저보다 더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조언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지역문화의 가능성 부분이야말로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인간다움, 지역의 지역다움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지방문화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지역학 관련 학술회의, 아카이브 등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하고 나니, 제가 차기 원장님께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것 같네요.(웃음) 그만 말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09. 원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영원한 현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장님께서는 끊임없이 '꿈꾸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고 있는 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현재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목표는 '문화보국(文化保國)'입니다. 문화로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서 이룬 성과도, 문화원장으로서의 여러 업적도 모두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 생각과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공산품처럼 어느 순간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해서 한식을 세계적인 음식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고급 증류주 화요도 이제는 대중화 되었습니다. 화요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의 술 문화가 조금씩 고급술을 즐기는 문화로 바뀐다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지역학 관련 학술회의, 아카이브 등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0주기 다례재, 2014

고급문화는 단순히 상류층의 문화가 아닙니다. 거기서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파생됩니다. 가온과 화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식문화와 술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제 새로운 도전이자 꿈입니다. 사실 완성품이 없는 문화라는 것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이상, 저는 계속 새로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하.

10. 마지막으로 새로 취임하는 원장님과, 오랜 기간 함께해온 성북문화원 임직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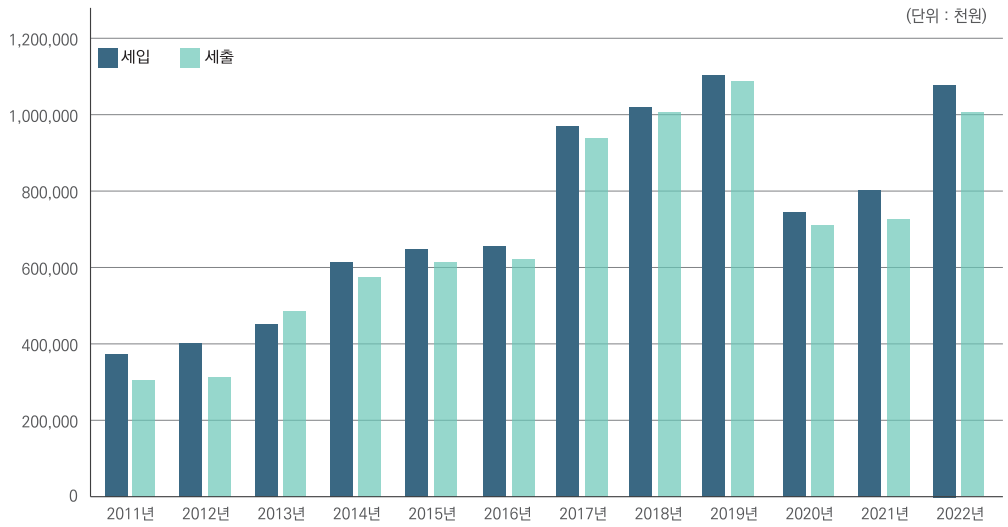
취임 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원장 직무대행, 이런 것까지 합치면 14년의 세월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취임했을 때 6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성과들을 보면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에 도움을 준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성북문화원장직을 내려놓지만, 성북문화원과의 인연, 특히 성북문화원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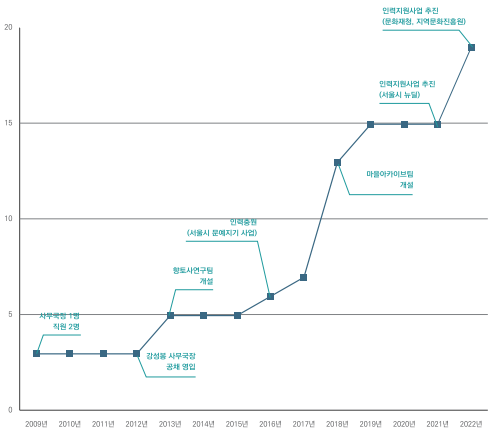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새로운 원장님과, 제 임기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조태권 원장 시기 성북문화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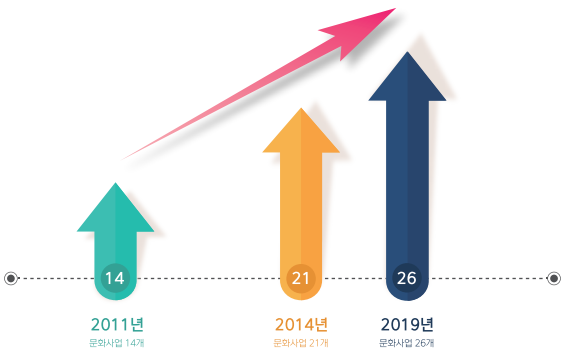
세입세출



상근직원수 변화



문화사업 증가



공감M아트센터 장옥주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 진행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인터뷰 정리 : 배인지(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2023년 계묘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큰 의미를 담아 뵙게 되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옥주입니다. 공감M아트센터 소극장 대표이자, 무형유산연합 백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된 게 이제 한국무용을 하시고 이 공간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한국무용을 처음 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국무용을 이렇게 하시게 된, 한국무용을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러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어린 나이여서 적응을 못하고 낯설어서 학교를 배회하다가 무용실에서 연습하는 친구들을 보고는 무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가서 어머니께 "나도 무용하고 싶어"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제가 직접 선생님께 찾아가서 무용하고 싶다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아마 책임감을 심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무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계기 였던 것 같아요. 춤의 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중학교 진로를 정할 때였어요. 부모님도 그때까지는 취미로만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녁에 춤 배우고 오는 길에 가로등 밑에서 춤추는 제 모습을 보셨고, 그때 재가 진짜 춤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리고는 앞으로 진로를 춤으로 정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텔레비전에 국악한마당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깨워서 보게 하시고, 제가 어렸을 당시 귀했던 가정용



인터뷰 중인 장옥주 대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춤의 길로 가게 되었죠.

책임감 같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한국무용을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좀 달라졌고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딱 (인생의) 반을 넘기면서 느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십대 초반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춤이 저를 그냥 이끌어 냈어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춤에 홀린 듯 빠져들어 추는 모습에 제 스스로도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2대8 가르마를 하고 예쁘게 쪽진머리를 하고, 바로 무대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연습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저한테는 인생에서 큰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쉬운 일은 없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랬을 때 뭐 고비 같은 게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우선 저한테는 지금도 생각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이신 이매방 선생님이 가장 큰 의미의 스승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도제식 교육이 있었어요. 선생님 집에 가

저는 승무를 춤을 출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어느 스님께 들은 말인데 승무는 '자심만덕(慈心萬德)',
그러니까 자신의 많은 덕을 쌓아야 되는 춤이에요.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편안함이 있지요.
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옥주 대표 승무 공연 모습(공감M아트센터 제공)

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뭐 정말 선생님과 같이 월사금을 내면서도 생활을 하며, 춤과 하나의 생활을 했던… 지금 교육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집에서 4년 이상을 주말이면 1박 2일 정도 선생님과 아침 9시에 들어가면 일요일날 밤 9시에 나오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1박 2일 내내 선생님하고 계속 춤만 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을 같이 했죠. 선생님과 시장을 가고, 선생님과 같이 옷을 짓고… 선생님이 제자들 옷도 직접 만들어주셨거든요. 이러면서 선생님의 손도 잡고 했죠. 그래서 얼마나 가까워 졌냐 하면, 선생님이 생활을 하시면서 옷을 지으면 저기에 자가 한 열 몇 개가 쫙 있다고 치면 이제 목포분이니까. "저기서 저거 좀 가져와라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찾으시는 저게 뭔지 한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2006년에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1,500석 규모였어요. 당시 이매방 선생님은 교수님들도 모시기 어려워 하셨는데, 제가 "저 공연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잉?"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청주 예술의전당이란 극장이 있는데 거기가 한 1500석 되는데 거기서 선생님 모시고 제가 발표회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이."(라고 하셨어요.) 그 밖에 다른 조건들은 이야기 하시지도 않았고,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는 "괜찮아, 언제든지. 너랑은 가능해" 이렇게 말하셨죠. 저한테는 사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을 선생님이 다 주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매방 선생님에게 춤 이외에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항상 저희 춤추는 사람한테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도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여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그 '마음 심'자를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춤의 전통을 올곧게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승무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무용, 춤을 출 때마다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승무를 추실 때 선생님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추시나요? 승무라는 춤의 매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무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승무를 춤을 출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어느 스님께 들은 말인데 '자심만덕(慈心萬德)', 그러니까 자신의 많은 덕을 쌓아야 되는 춤이에요.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편안함이 있지요. 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염원,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는 마음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에 춤을 담고 표현을 하다 보면, 관객도 차분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이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갈 수 있는 승무의 느낌으로서 전달해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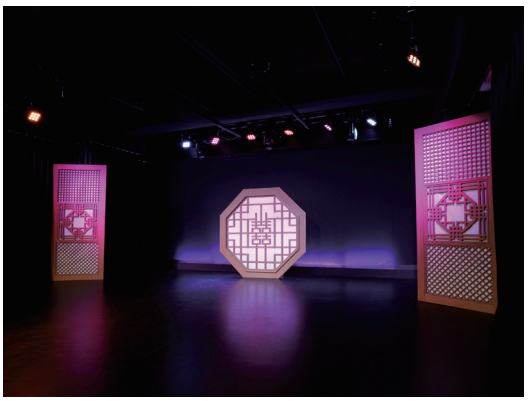
수 있는 웅장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매방 선생님은 전통춤 중에 승무를 가장 큰 제왕이라고 항상 자부하셨어요.

대표님께서는 한국무용의 전통을 좀 살리시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전통문화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계속 맥이 끊기고, 서구문화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한국무용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참 안타까운 게, 이 소공연장에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예술인들을 모시고 공연하지만 저에게 있어 미약한 점은 홍보 마케팅이에요.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보는 많은 분에게 감흥을 주기 위해서 한국무용이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산이 어찌 되었든 예인들을 연결해주고 회사가 그들을 키워주는 것과 같은 홍보 마케팅 부분에 더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사나 본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북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감M아트센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운영하신지 4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이곳에 자리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연의 흐름에 따라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성북구는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핵심지라고 생각해요. 그 요소와 핵심을 어떻게 또다시 창출해내는지가 저한테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이끌어 내주신 분들이 오랜 세월 지켜주시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해야 할 저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감M아트센터 극장(무대)(공감M아트센터 제공)



공감M아트센터 연습실(공감M아트센터 제공)

제 소임은 작은 곳이지만 오신 분들이 편하게 그 마음의 펼침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대표이지만 스태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리미판 같이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다니다 보면 다리미판 하나가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요소요소에 더 마음을 담아 준비했죠.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극장 운영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도 전통 무용과 관련된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뿌듯했던 점이 있으셨다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감M아트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1년 후에 바로 터진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년을 보냈어요. 춤을 출 때는 저의 것만 어떻게든 잘 만들어내면 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감이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제 소임은 작은 곳이지만 오신 분들이 편하게 그 마음의 펼침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대표이지만 스태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공감M'인가 봐요. 저는 그래서 다리미판 같이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다니다 보면 다리미판 하나가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요소요소에 더 마음을 담아 준비했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성북구에서 4년 정도 활동하시면서 성북구 예술인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직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여러 예술인과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저에 대한 숙제인 거고요. 또 모든 예술인이 자기 분야의 길을 열심히 잘 걷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성북구 지역에서 예술 공간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서 제도나 시설, 행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도 하고 홍보 마케팅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획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



무형유산연합 백미 공연(공감M아트센터 제공)

면 공연에 오실 수 있는 관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거나, 그런 것을 맡아줄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다면 더 많은 분께 예술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술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전통 예술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 행사들이 특히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나아가 보려 하는데요. 지금도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있지만, 앞으로의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이 극장이 생긴 꿈을 저는 한자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일수백확(一樹百穫)'은 한 가지의 나무에서 여러 개의 꽃이 핀다는 뜻인데요. 공감M아트센터에서 재능 있는 많은 예술가를 키워낸다는 목표로 '일수백확(一樹百穫)년'을 기획했어요. 두 번째로 '천자만홍(千紫萬紅)년'은 천 가지의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롭다는 뜻을 담아서 모든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져 춤판을 벌일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만고천추(萬古千秋)년'은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전통춤이 영원한 세월을 담고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어요. 그 앞 글자를 떼어서 합쳐보니 '일천만

(一千萬)'이 되더라고요. 이 공연장이 일천만이 춤을 출 수 있는 꿈을 꽃 피워낼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처럼 한국무용을 하는 학생들이나,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조언이나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참 감사한 거라고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역시 그 달란트가 '춤'이라는 것으로 들어와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고, 때문에 어려움도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또 예술은 더불어서 가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는 단단함을 키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만의 뚝심,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공이란 건 다른 게 없거든요.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관대한 꿈보다 오늘 하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글 : 김명준(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역사문화센터 문을 열다

성북동은 성북구 내 20개 행정동 중에서 3번째로 넓은 동입니다. 면적이 약 2.86㎢입니다. 넓은 성북동에는 그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조선 후기 성 밖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마전터부터 시작해 한국근대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1930년대 경성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하는 주거공간이 필요했는데 이 때 떠오른 곳이 성북동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활약한 문화예술인, 독립운동가들이 성북동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상허 이태준, 근원 김용준, 조지훈, 음악가 채동선, 윤이상, 혜곡 최순우 등 근현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거주공간이며 만남과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성북역사문화센터가 서있는 자리는 과거 오랫동안 재활용품 집하장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시가 성북동을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성북동은 서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야기가 가득한 성북동을 향한 역사적인 관심, 문화적 발걸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탐방객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북역사문화센터'는 7년이라는 긴 고민과 관심으로 2020년 3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북역사문화센터는?

성북역사문화센터는 성북동 언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 성북초등학교 맞은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북역사문화센터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위해 건물 외부는 목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밖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큼지막한 통유리 창으로 벽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층 안내센터는 성북구와 성북동 홍보자료, 주변 문화시설 이벤트를 알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성북구 문화정보자료, 아카이빙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검색대, 성북동을 테마별로 나눠놓은 도보탐


1층 안내데스크와 자료검색대


2층 쉼터

방지도와 안내데스크를 지나 밖으로 나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은 쉼터, 도서관,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에서는 북악산 꼭대기를 향해 쭉 뻗은 한양도성이 보이고 테라스 맞은편은 벽면이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성북동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성북동 인물자료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책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회의, 스터디모임, 교육을 위한 대관을 주로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성북동 탐방객을 위한 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20년 3월 개관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적극적인 운영을 펼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운영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감염확산이 줄어들고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성북역사문화센터도 센터활성화를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한 해 성북역사문화센터에서는 성북동을 방문하는 탐방객과 주민들을 위한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봄, 여름

성북동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알려지지 않은 산책로, 접근성이 낮았던 대사관 탐방로 등 도보탐방이 가능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관광하면 빠질 수 없는 맛집, 빵집, 한옥카페를 직접 방문하고 맛보며 컨텐츠로 녹여냈습니다.

여름에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여름방학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체험 이벤트를 결합해 실내에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퍼즐 한양도성을 조립해보고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형필을 알아보며 김홍도의 황묘농접도를 그려보고 성북동의 독립운동을 알아보



성북역사문화센터 여름방학프로그램

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 겨울

성북동의 가을은 볼거리 먹거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세계음식축제부터 라틴아메리카축제 그리고 성북동 대표역사문화축제 '성북동밤마실'이 성북동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북역사문화센터는 '성북동밤마실'의 한 문화시설로 참가하여 청사초롱을 만들어 성북동골목을 밝혔습니다. 겨울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주제를 달리해 2차 역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우리동네역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청사초롱만들기


겨울 방학 프로그램

앞으로

성북동에는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걷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성북동의 매력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시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으로 발걸음을 향하게끔 다양한 공간들을 찾고 홍보하고 탐방객들을 위한 쉼터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공간 2

혜화문 아래 있었던 동굴 주점

글: 박이선(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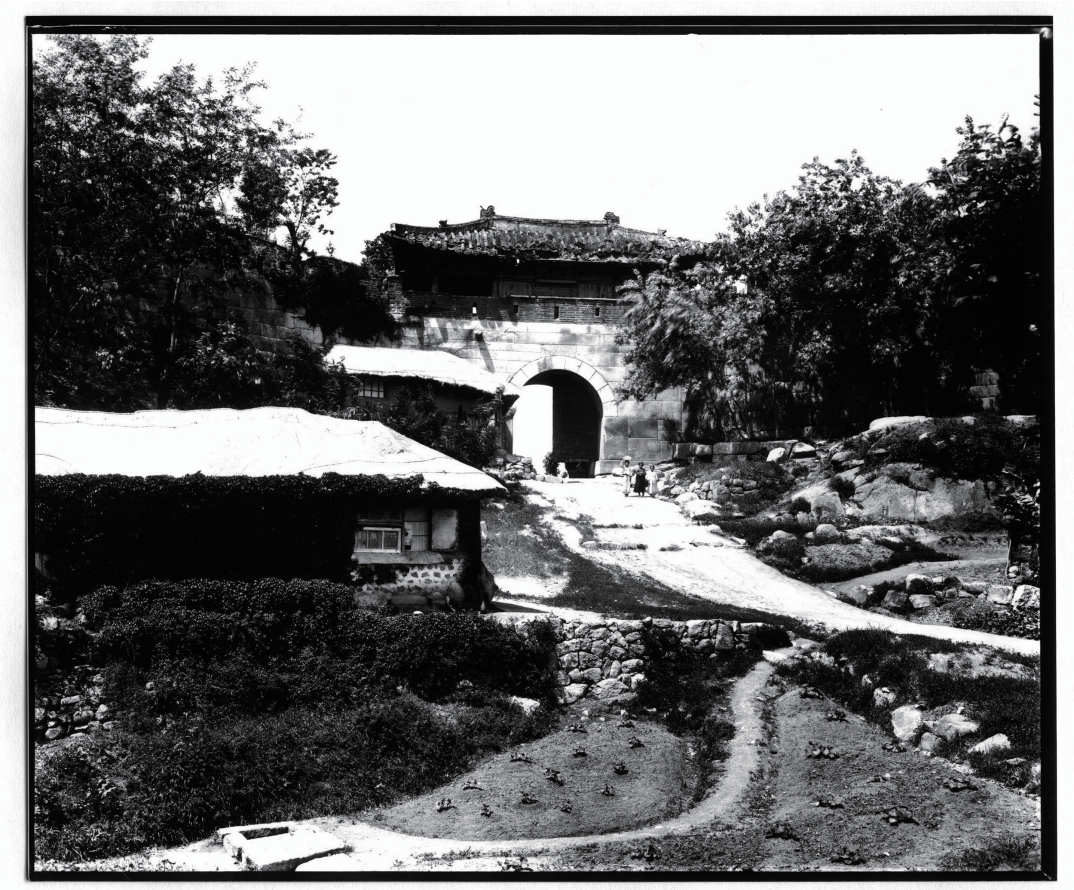
혜화문은 성북구 성북동과 종로구 혜화동의 경계에 위치한 한양도성의 사소문(四小門)중 하나이다.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불렸으며, 사소문 중의 하나이지만 사대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 가까운 북쪽의 숙정문이 항상 닫혀있었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함경도 등 북방으로 통하는 경원가도(京元街道, 삼선동에서 원산까지 연결되었던 옛 도로의 이름)의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혜화문은 1899년 서대문~청량리 간 전차 노선이 개통되면서 관문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28년 조선총독부는 혜화문을 보존하고 관리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문루(門樓, 문 위에 다락의 형태로 지어진 일종의 초소에 해당하는 공간)를 헐어내었다. 1938년에는 간선도로의 확장과정에서 석문과 홍예마저 헐리고 말았다. 그렇게 보존되지 못하고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던 혜화문은 1994년, 원래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13미터 옮겨 복원되었다. 원래 혜화문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서울시의 대규모 교통량을 수용하고 있는 창경궁로가 지나가고 있다.

현재의 혜화문(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혜화문이 1994년 복원되기 전, 삼선교에서 혜화동 로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의 혜화문을 지탱하고 있던 축대 밑에는 '석굴암'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생겨난 방공호 굴로 추정되는 곳에 말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며 점점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던 혜화문이 1994년 복원되기 전, 삼선교에서 혜화동 로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의 혜화문을 지탱하고 있던 축대 밑에는 '석굴암'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었다. 6.25전쟁 당시 생겨난 방공호 굴로 추정되는 곳에 말이다. 축대 밑에 자그맣게 '석굴암'이라고 적힌 간판을 찾아 들어가면 내부에는 군데군데 대피 장소로 만들어진 곳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있었고, 창문도 없이 온통 화강암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인지 술집 내부는 항상 시원했다고 한다. 이 독특한 형태의 술집에 근처의 주머니가 가벼운 청춘들이 모여들었다. 깍두기와 전을 안주삼아 밀가루로 빚은 싸구려 막걸리를 마시며 우정을 나누고,



일제강점기 혜화문의 모습(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혜화문 복원 공사, 1993(출처 : 성북구청)



혜화문 복원 공사, 1993(출처 : 성북구청)

대학생활의 묘미인 미팅을 했다고 한다. 석굴암 주점은 언제 생겼는지, 또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터넷 상의 당시를 회고하는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 70년대 언저리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다는 점, 1992년부터 혜화문 복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철거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유추할 수 있다.

> 미아리고개 아래 운명철학관은 요즈음도 성업중이지만 아리랑고개 못미쳐 동도극장은 없네. (…) 극장 건너 굴 속 술집 일제시대 방공호에서 뒤풀이를 했던가? 안했던가? 지금처럼 값이 오만하지 않았단던 굴비를 안주 삼아.
>
> 최일남, 「돈암동」, 『석류』(현대문학, 2004), pp. 176-177.

최일남의 단편소설집 『석류』에 담긴 소설 「돈암동」의 한 대목이다. 위에서 언급된 '굴 속 술집'은 혜화문 아래에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돈암초등학교 부근, 동도극장 맞은편에 있었던 방공호를 이용한 또 다른 주점 '동굴'이다. 동도극장은 돈암교 전차정류장 부근(현 동소문로 48)에서 운영되었던 영화관 겸 공연장으로, 1948년 개관하여 운영되어오다가 1981년 컬러TV의 보급과 함께 경영난을 피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혜화문 아래 '석굴암' 술집에 관한 정보 역시 어렵게나마 찾을 수 있었는데,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 씨의 구술생애사 채록 과정에서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 아무튼 낙산에서 쭉 성곽이 이어져 오며 언덕 꼭대기에 혜화문이 있고, 그 아래 거의 수직으로 잘린 담벼락에 아주 넓은 굴이 뚫려 있었어요. (…) 그 동굴에 '석굴암'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 제가 고등학교 때 외삼촌을 따라가서 그 석굴암 술집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보이는 입구보다 안이 아주

넓었어요. 굴이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굴속이라 늘 어둡지요. 불을 밝혀야 하는데 촛불 대신 값이 싼 카바이드에 불을 붙여 썼어요.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의 삶과 꿈』, 성북문화원, pp. 48-50.



동아일보에 실린 동도극장 광고, 1948(출처: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이 외에도 혜화문 석굴암 주점은 당시 청춘을 보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삼선동, 성북동, 혜화동 등 혜화문 일대를 회상할 때 석굴암 주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석굴암 주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사진 자료는 잘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가볍게 막걸리 한 잔 하러 가며 거창하게 카메라를 들고 갈 이유는 없었을 것이며(당시 카메라는 엄청난 고가품이었다.), 허름한 술집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세세히 작성해 놓은 경우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조그맣게 나있는 간판과 서늘하고 어둑하나 아늑한 동굴에서 싸구려 막걸리를 마시며 젊음을 누리던 청춘들의 모습을 그저 상상만 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형성된 장소라는 점에서 그곳은 역사의 현장이고, 공식적인 역사의 기록이 놓친 삶의 생생한 흔적이다. 언젠가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1

일제강점기 한글학자의 시외생활기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조선어연구회는 1908년 주시경과 김정진 등이 창립한 '국어연구학회'를 모체로 하는 학술단체로 1917년 활동이 중단되었던 학회를 1921년 재건한 것이다. 1929년 음력 9월 29일(양력 10월 31일) 조선어연구회는 조선교육협회 회관 강당에서 483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연다. 이때 이극로, 이윤재, 정인보 등 각계 인사 108명이 발기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시작된 사전 편찬작업은 1957년 마지막 권인 제6권이 발행되기까지 무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 조선어편찬사업의 핵심 인물로 이극로(1893-1978)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가 성북구에 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다.



이극로(출처: 프랑스 국립 도서관)

경상남도 의령 출생인 이극로는 1920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퉁지(東帝)대학을 졸업한 후 1922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베를린 대학교(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에 입학하였다. 1927년 베를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영국 런던대학에서 연구생을 마친 이극로는 1928년 6월 아일랜드 문부성을 방문해 아일랜드의 국어교육 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아일랜드인들이 모국어 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

도로표지 등도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본 이극로는 우리말과 글도 이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을 걱정하며, 한글 운동에 매진하기로 결심한다.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 일본 등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힌 그는 1929년 귀국하여 조선어연구회에 가입했고, 같은 해 10월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가 조직될 때 위원장을 맡는다. 1929년 12월 발행된『별건곤』제24호에 실린 이극로의 글을 보면 그가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잘 알 수 있다.

> 어느 사람은 한번 술자리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 "너희는 자전(사전)도 한 권 없는 것들이 무슨 큰 소리냐!"하는 모욕을 당하고 자전사업에 분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집필자도 몇 년 전에 백림대학(伯林大學, 베를린대학교)에서 4년간 조선어강좌를 맡아볼 때에 조선어 표준자전이 없어서 차마 못 당할 고통과 수치를 어찌 한두 사람만 당했으리오. 얼굴 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럼은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누구나 글 쓸 때 고통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
> 우리의 사전 편찬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표준어와 철자법(綴字法, 맞춤법)이 정해졌으므로 쓰임에 따라서 자전 내용만 신축해 편찬할 뿐이지만은 우리말은 아직 모든 것이 정해지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때에나 통일이 되어서 권위가 있는 표준자전이 나와야될 것이다. 그러자면 적어도 통일기관을 특설해야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사업은 결단코 첫걸음부터 걸어가는 것이 아니오, 여러 선배들의 이십 년 내에 노력해 온 쌓은 공을 총결산하자는 것이며 수다(數多)의 권위로부터 일대권위를 세우려는 것이다.
>
> 「조선어사전과 조선인」,『별건곤』제24호, 1929년 12월, 개벽사

이제 막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의 포문을 연 1929년 12월 이극로는 교사였던 김공순 씨와 결혼한다. 이극로는 부인 김공순 씨가 1932년에 종암동 숭인보통학교(현 숭례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으면서 함께 종암동 40번지로 이사하게 된다. 이후 1939년 김공순 씨가 지금의 중앙대 옆 은로초교 교

집필자도 몇 년 전에 백림대학(伯林大學, 베를린대학교)에서 4년간 조선어강좌를 맡아볼 때에 조선어 표준자전이 없어서 차마 못 당할 고통과 수치를 어찌 한두 사람만 당했으리오. 얼굴 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럼은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누구나 글 쓸 때 고통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종암동 40번지

사로 발령받아, 종로구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극로와 그의 가족들은 약 10년간 종암동에 거주하였다. 이극로가 밤낮으로 종로구 조선어학회 사무실과 종암동을 오가며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에 매진하였으니 종암동은 우리 말 연구 역사의 주요 장소였던 셈이다. 현재 종암동 40번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이극로의 옛집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잡지에 실린 몇 편의 글과 사진을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모래 수요일 아침 열 시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시는 길은 동대문에서 청량리로 가는 전차를 타시고 경마장 다음 정류소에서 영도사가는 큰길로 자꾸 오시다가 보성전문학교 앞을 지나고 숭인보통학교 앞을 더 지나서 수십걸음 오시다가 왼편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서 바로 오시면 전등선 기둥이 있고 그 옆에 검은 판장으로 박은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전차에서 내려서도 오는 길이 사오십 분은 걸립니다.
>
> 저자미상, 1937,「가정태평기(家庭太平記)
> - 한글을 연구(硏究)하시는 이극로씨가정(李克魯氏家庭)」,『여성』, 조선일보사출판부

위의 글은 1937년 이극로가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에게 보낸 엽서이다. 영도사는 지금의 개운사, 보성전문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를 말한다. 엽서에 숭인보통학교에서 수십걸음을 걸어 왼편에 있는 집이라 하였는데 지금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숭례초등학교와 집터의 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않는다.



이극로의 집이 있던 자리, 숭례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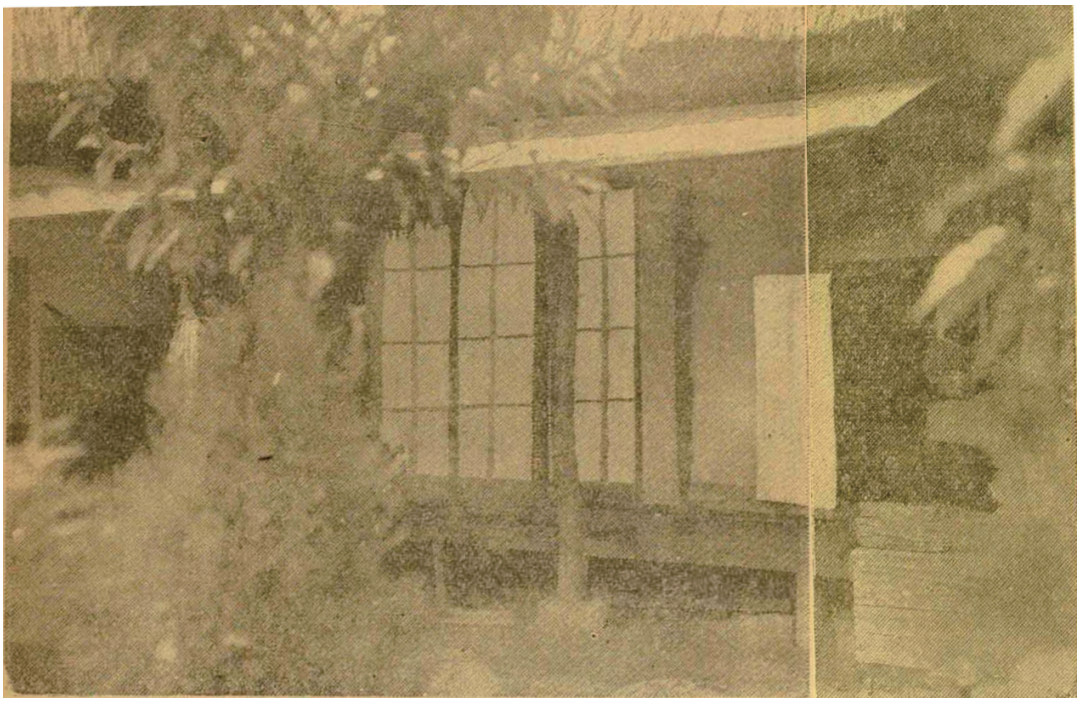


1947년 종암동 일대 항공사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엽서를 받은 기자는 경성부 종암정 40번지라고 적힌 주소를 보고, "'종암정' 처음 듣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나선다. 그도 그럴 것이 종암동 지역이 경성부에 편입되어 '종암정'이 된 것은 당시 기준으로 불과 1년이 채 안 된 1936년의 일이었다. 그전까지 종암동 지역은 경기도 숭인면에 속한 시 외곽지역이었다. 1947년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의 고려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민가가 모여있을 뿐 그 외의 지역은 모두 논과 밭인 시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극로는 외곽의 한적한 동네 종암동을 사랑했다. 그는 집 앞 뜰에 손수 석조산과 연못을 만들고 화단을 꾸몄다. 조선일보사의 월간지『조광』에는 그의 집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이를 찍은 사진도 남아있다.

> 눈을 돌려 뜰 앞을 바라보니 어데서 인지 기석괴석을 주시다가 석조산을 만들고 새새이 나무와 꽃을 심었다. 그리고 한옆으로는 적은 연못이 있어서 금붕어 몇 마리가 때를 만난 듯이 꼬리를 치며 놀고 있다. 다시 석조산과 연못을 빙들니 화단이 설계되었는데 따리아, 채송화, 봉선화, 츄립(튤립), 무궁화 온갖 꽃을 가득히 심었다.
>
> 「그 주택·그 정원 : 한글학자 이극로씨주택」,『조광』제3권 9호, 1937년 9월호, 조선일보사출판부



『조광』 1937년 9월호에 실린 이극로의 집(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개벽』 신간 제1호에 실린 「각계인물만화전」에 묘사된 이극로(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38년 『소년』지에 실은 글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마을을 북바위라 소개하며, "이 마을 앞은 청량리 뒤에 있는 총독부 임업시험장이요 북쪽으로 멀리 그림 병풍처럼 둘러선 산은 삼각산과 도봉이라 그 풍경이 참 훌륭합니다. 옆 산등 넘어에는 영도사 절이 있어 새벽 종소리에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참 살기 좋은 이상촌입니다."라며 종암동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보았던 『여성』 지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시내를 오가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도 "여기 다니는 길은 산보하기 좋은 길이라 운동만 될 뿐아니라 아침저녁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였다.

『개벽』에는 여러 인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극로는 중절모에 두루마리를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마 평소의

> *이 마을 앞은 청량리 뒤에 있는 총독부 임업시험장이요*
> *북쪽으로 멀리 그림 병풍처럼 둘러선 산은 삼각산과 도봉이라*
> *그 풍경이 참 훌륭합니다. 옆 산등 넘어에는 영도사 절이 있어*
> *새벽 종소리에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 *참 살기 좋은 이상촌입니다.*

차림새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10여 년 동안 종로의 사무실과 종암동 집을 오가는 그 먼 길에서 우리말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그의 자취를 더듬어보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일상의 장소가 역사의 한 장소였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참고자료】
이극로, 1929,「조선어사전과 조선인」,『별건곤』제24호, 개벽사
저자미상, 1937,「가정태평기(家庭太平記) - 한글을 연구(硏究)하시는 이극로씨가정(李克魯氏家庭)」,『여성』, 조선일보사출판부
일기자(一記者), 1937,「그 주택(住宅)·그 정원(庭園) : 한글학자(學者) 이극로씨주택(李克魯氏住宅)」,『조광』제3권 9호, 조선일보사출판부
이극로, 조준희(엮음), 2019,『이극로 전집 2: 남한 편』, 소명출판
조준희, 2020,「이곳이 영화「말모이」이극로 종암동 집터」,『한글새소식』제580호, 한글학회
류민기,「[말모이 이극로 선생] (상) 한글운동에 한평생」,『경남도민일보』, 2019. 1. 22. (검색일: 2022. 10. 7.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714)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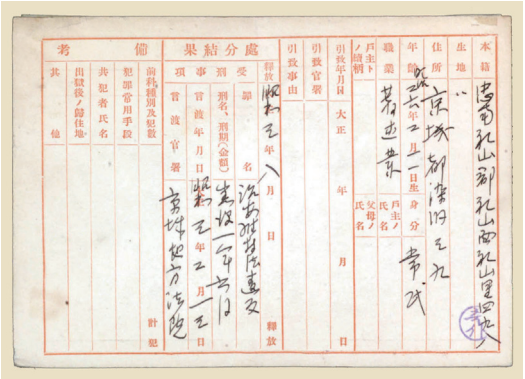
성북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독립운동가가 되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관용은 미덕이다.

글: 박이선(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성북문화원에서 이번에 주목한 또 다른 근현대사 속 인물은 바로 성북동에 거주하며 병원을 경영했던 조금은 특이한 이력의 독립운동가 '유진희'이다. 1893년 2월 11일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한 유진희는 서울로 상경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했고 1914년 졸업했다. 이후 그는 의사가 되어 성북동에 거주하며 병원을 경영했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의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루고자 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유진희는 경성의전 졸업 몇 년 후인 1921년 3월 노동운동의 시초 격인 조선노동공제회의 대표 61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는 등 노동운동의 노선에서 해방을 위해 투쟁했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유진희(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또한 그는 같은 해 6월 모교인 경성의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교내에서 해부학 실험용 두개골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일본인 교수 구보 다케시는 조선인 학생에게만 혐의를 씌우고 민족성을 모욕하는 등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차별하는 언행을 저질렀다. 그는 조선인이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부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인물로, 실험용 두개골이 분실된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이 더 야만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언사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성의전의 조선인 학생 194명은 맹휴투쟁을 벌였는데, 이 때 유진희는 동창회 대표로 선출되어 조선인 학생 측과 학교 측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썼다.



『신생활(新生活)』 표지(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후 그는 1922년 창간된 잡지『신생활』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였던『신생활』은 창간호가 나오자마자 발매가 금지되었고, 김명식의「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 신일용의「5년 전 회고」, 유진희의「민족운동과 무산계급의 전술」, 이항발(李恒發)의「자유노동조합결성의 취지」등의 글이 실린 11월 특집호「노국(露國)혁명 5주년 기념호」는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되는 결과를 맞았다. 언론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이러한 조처를 두고 11월 27일 언론옹호결의문을 발표하며 당국에 맞섰다. 하지만『신생활』은 결국 폐간 조치되었고,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진희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22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잡지『신생활』관계자 4명과 자유노동조합 관계자 2명의 사진이 실린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이 뿐만 아니라 유진희는 1927년 신간회 결성 이후 식민지 정책 타도와 총독정치 배격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

“유진희는 1927년 신간회 결성 이후 식민지 정책 타도와 총독정치 배격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충남 예산에서 상경한 유진희는 경성의전 재학 시절 전후 무렵부터 경성의전이 위치했던 혜화동과 가까운 성북동에 자리를 잡고 이후에 병원 경영, 신간회 활동 등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간회에는 조헌영, 한용운, 최익환, 안재홍 등 다수의 성북의 인물들이 활동하였으니 그가 성북동에 거주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유진희가 살았던 성북동 집과 그가 운영했던 성북동 병원의 구체적인 주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그가 성북동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며 활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자취를 발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醫者義也(의자의야)”

의술의 깊은 진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음.

의사이자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10여 년 가까이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였던 유진희 선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표현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지만, 그가 활동했던 자취를 희미하게나마 따라가 보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022 성북문화원 행사

성북에서 다시 핀 꽃
이중섭, 김상옥, 금수현

- 2022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

글: 박혜란(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성북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며, 문예인들은 예술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2022년은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가 창단한 의미 있는 해로 문화 예술인들의 교류를 재조명하고, 성북구 문인을 포함한 예술인 3인의 작품적 교류와 대표 작품을 소재로 '문화가 있는 날'이 진행되었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여정을 되짚어보자.

1회차 : 담화(談花) : 꽃을 말하다(2022.07.27.)

성북구 정릉에 거주했던 화가 이중섭. 이중섭은 김상옥의 시와 금수현의 음악으로 이어지는 작품 세계의 시작 인물이다.



이중섭 〈닭과 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담화(談花) : 꽃을 말하다' 강연이 진행되는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강연을 진행한 큐레이터 안현정, 예술감독 아드리엘 김



강연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이다.

그가 김상옥 시인의 출판기념회에 남긴 작품 '복숭아를 문 닭과 게'는 김상옥의 시 '꽃으로 그린 악보', 금수현의 가곡 '꽃으로 그린 그림'으로 창작 활동이 이어졌다. 이를 소재로 한 미술 강연이 '문화가 있는 날'의 1차 『담화(談花) : 꽃을 말하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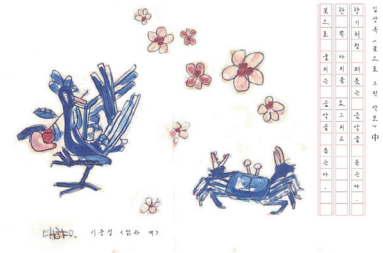
'복숭아를 문 닭과 게'를 필두로 이중섭의 대표 작품을 알아보고, 화가 이중섭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성북구 정릉에 거주했던 그 시절 그의 이야기와 예술적 관계를 맺었던 동료 창작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강연에는 큐레이터 안현정과 예술감독 아드리엘 김이 강연자로 함께했다.

2회차 :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시)(2022.08.31.)

1차 미술 강연을 통해 문인 3인의 예술적 관계와 이중섭의 삶을 알아봤다면, 2차에는 김상옥의 시와 금수현의 음악을 소재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김상옥의 시구와 이중섭의 그림이 담긴 엽서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



이중섭 〈닭과 게〉 그림과 김상옥 〈꽃으로 그린 악보〉 시구가 담긴 엽서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시)』 공연 중인 21han 퀄텟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시)』 공연 중
작곡가 금수현〈그네〉를 연주중인 다니엘 린데만 트리오



작곡가 금수현의 대표곡 〈꽃으로 그린 그림〉을 연주중인
다니엘 린데만

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7시에는 작곡가 금수현의 음악과 공연팀의 자작곡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재즈 콘서트가 펼쳐졌다.

첫 번째 공연은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21han 쿼텟'이 무대에 올랐다. '21han 쿼텟'의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스탠다드 재즈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공연은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다니엘 린데만 트리오'가 무대에 올랐다. '다니엘 린데만 트리오'는 금수현의 대표곡 〈그네〉, 〈꽃으로 그린 그림〉과 '다니엘 린데만 트리오'의 자작곡을 함께 들려주었다.

3회차 : 꽃봉'우리', 만개하다(2022.09.28.)

'문화가 있는 날'의 마지막 3차는『꽃봉'우리', 만개하다』라는 부제로 진행되었다.

꽃이 활짝 피기 전의 상태를 일컫는 '꽃봉오리'와 '우리'라는 두 단어를 결합해 〈꽃봉'우리'〉라는



대금연주자 김지현이『꽃봉'우리', 만개하다』의
첫 번째 공연무대에 올랐다.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부문에서
장원을 수상한 이정아



‘성북구지역연고예술단체’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유주호



창작전통그룹 앙상블 5471의 공연 모습

단어가 탄생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예술가 3인의 작품 소재가 된 ‘꽃’을 주제로 ‘꽃모양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와 ‘한지꽃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저녁 7시에는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졌다.

유튜버 ‘대금이누나’로 활동 중인 대금연주자 김지현과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부문에서 장원을 수상한 가야금병창 이정아, 싱어송라이터 유주호, 창작전통그룹 앙상블 5471의 공연이 펼쳐졌다.

‘2022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문인들의 예술적 관계와 그들의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만나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성북동밤마실

글 : 최효정(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2022년 9월 30일(금) ~ 10월 1일(토) 성북동 일대에서 성북구청이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이 주관한 성북동밤마실이 진행됐다. 이는 2017년부터 진행되어온 성북구의 대표 문화행사 '성북동문화재야행'의 새로운 이름이다.

코로나19로 주변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진 요즘. 실외 마스크 해제 및 오프라인 축제를 맞이해 옛 성북동 문예인들의 다양한 관계와 현대사회의 이웃들과의 관계의 의미에 집중하고자 했다. 밤에 진행하는 축제인 만큼 시간대를 나타내는 달과, 관계를 나타내는 실 이미지를 활용한 직관적인 미술작품으로 조성했다. 더불어 문예인들의 대표 작품을 캘리그라피로 완성한 다양한 조명과 풍선으로 그 멋을 더했다.

올해에는 오프라인 개막식을 진행했다. 성북구청장 및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성북국악협회의 극단 류에서 축하 공연을 진행해 본격적인 성북동밤마실 개막을 알렸다.

행사기간 동안 6개의 문화재와 4개의 문화시설이 야간개방을 실시했다. 문화재로는 심우장, 선잠단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최순우옛집, 이종석 별장 그리고 한양도성이, 문화시설은





우리옛돌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예향재 그리고 성북역사문화센터가 야간개방을 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 선생님의 팔도강산아리랑을 시작으로 성북국악협회의 대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건자 선생님과 성북국악협회의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 장옥주 선생님의 승무까지 전통공연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력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K-POP부터 재즈까지 어우르는 버스킹 공연과 지역연고예술단체들의 연극, 연주, 뮤지컬까지 폭 넓은 장르의 공연으로 메인거리를 뜨겁게 달궜다.

성북동밤마실의 중심 프로그램인 '성북전차'는 1941년 성북동에 개통한 전차를 모티브로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4대의 버스로 총 7개의 정류장을 운영했다. 또한 '실은 말이야'(해설탐방)는 지역 협동조합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과 연계해 성북동 일대를 거닐면서 문화재 해설과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성북동코스와 한양도성코스를 운영했다.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해 거리를 밝혔다. 성북선잠박물관에서 선잠의 대표 곤충인 누에 '잠이'를 딴 잠이인형 만들기, 예향재에서 우리 전통의 멋과 정성을 담은 버선향낭 만들기, 성북미술협회에서 비단을 활용한 비단부채 만들기, 성북역사문화센터에서 성북동 달빛을 담은 성북동 청사초롱 만들기,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아이들도 가볍게 만들고 놀 수 있는 페이퍼토이 만들기를 진행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 부스로 참여한 기관들의 개별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다.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은 기억의 실이란 부스를 통해 엽서를 통한 방명록 수집과 아카이브 홈페이지인 성북마을발견+문학 홍보를 진행했다. 한성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트랙의 학생들이 진행한 성북동 밤탈출 : 만해는 성북동에서 활동한 독립 운동가이자 주민이었던 한용운 선생님을 주제로 연속으로 퀴즈를 풀어가는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을 기획해 사전예약은 물론 총 150여 명의 참여자를 기록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한성대와 연계한 성북동밤화실은 캐리커처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기하는 사람으로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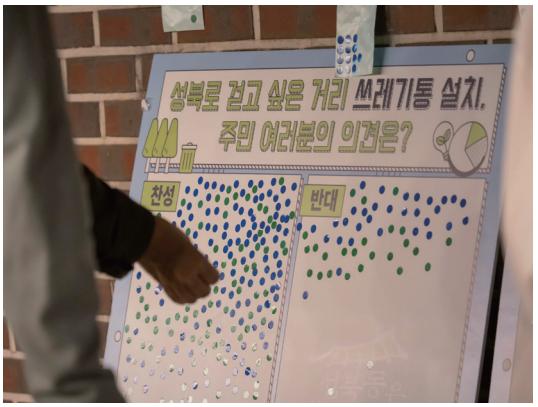
을 이뤘다.

성북문화원 서포터즈 북실이도 밤마실에서 열심히 뛰었다. 성북문화원과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해 총 2달간 교육 및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부스 아이템부터 직접 현장운영까지 했으며, 성북동밤마실팔찌를 운영해 어린아이들이 부스 앞을 떠나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문화공간 이육사에서도 참여해 청포도마을 입체퍼즐 만들기, 이육사 엽서와 편지노트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성북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성북로 거리환경 및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참여했다. 의견조사 보드에 스티커를 붙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모으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성북문화도시센터에서도 문화도시 성북 부스로 참여해주었다. 문화도시라는 사업 홍보와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다.

성북미술협회와 한성대 회화과와 같이 진행한 아트마켓(아트페어)은 성북구 문화예술인과 예비 문화예술인들의 판매시장 제공 및 경로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단순한 작품 관람을 넘어 소비까지 연결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두 손 무겁게 돌아가기도 했다.









성북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장도 마련했다. 관내 예술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해 총 5팀이 선정되었고 축제 현장에서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해 많은 분들이 제품을 구매했다.

2일 동안 약 2만여 명이 다녀간 성북동밤마실은 내년도엔 성북동문화재야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22 주민기록단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 2022년 주민기록단 활동 소개

우리 문화원의 주요사업 주민기록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지 어느덧 햇수로 5년이 되었다. 주민기록단 교육은「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운영되며 ①상반기교육 ②하반기교육 ③주민기록단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기록단 교육은 민관(民官)의 상호교류와 더불어 수료 이후에도 긍정적 효과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료하신 분들과 마을기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집한 기록물은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록의 날' 행사에 맞춰 수집한 기록물들을 활용한 전시도 성황리에 열었다.

'주민기록단'은 성북구 주민들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성북의 역사기록단이다.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구술 자료로 기록하며, 성북구의 인물·자연·건축물들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하반기 교육 모두 비디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2년 만에 대면수업을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었고 교육생 수도 대폭 증가했다. 우선 상반기 교육부터 차례로 살펴보겠다.

상반기 교육은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주차로 진행되었다. 상반기 교육은 주로 주민기록단 활동을 위한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술인터뷰 방법과 보고서 작성방법을 배우고, 하반기 교육과 연계되는 현장실습도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를 써보고, 수료 후에는 주민기록단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다. 올해 주민기록단 교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현대사를 가르치는 오제연 교수님이 맡아주었다. 한국구술사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역사교양 프로인 KBS <역사저널 그날>에 역사전문가 패널로 출연했다.

상반기 교육 이후에는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가 모집을 진행했고, 주민기록단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번 주민기록단 활동은 정식으로 출범식을 열었고, 서울기록원 견학, 사진·동영상 촬영법 특강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로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활동자 참여도를 높이면서 주민기록단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주민기록단 활동가들은 성북구 내의 재개발 지역과 변해가는 도시경관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분들은 발로 뛰어가며 사라져 가는 경관을 촬영하고, 지역의 상인·주민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구술생애사 도서발간을 목표로 진행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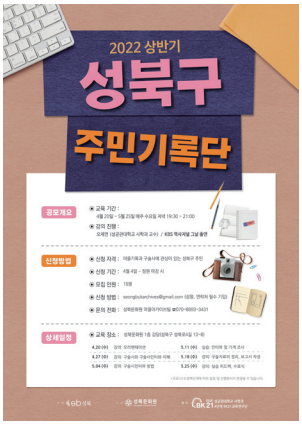
다. 강의 내용은 구술인터뷰 방법, 녹취록 작성, 구술생애사 글쓰기로 구성했으며, 조별활동을 진행하여 구술자 인터뷰 및 시각자료 모으기 등 현장실습도 병행했다. 강의 4주차에는 구술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장위동과 보문동을 답사하고 구술자와 관련된 장소를 촬영했다. 마지막으로 구술생애사 글쓰기를 직접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하반기 교육에서는 구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장위동 우덕수 구술자는 11월 프로필 사진촬영 당시, 장위동의 변화상을 함께 다니면서 구석구석 설명해주었다. 보문동 박춘화 구술자는 과거 성북천 일대의 모습을 직접 스케치북에 그려주었다. 또한 교육 결과물『성북사람들의 구술생애사』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덕수·박춘화 구술자와 오랜 시간 구술내용의 확인과 검토를 거쳤다.

올해 주민기록단 사업은 주민기록단 활동자 출범식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는 지역·주민활동으로 거듭나기 위함이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특강과 서울기록원 견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민기록단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올해의 새로운 성과였다. 성북문화원의 주민기록단 교육은 앞으로도 현장과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전된 교육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다.

♣ 주민기록단이 되려면?

매년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는「주민기록단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정식 '주민기록단'이 되어 성북문화원과 함께 마을기록 수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간 실습을 거쳐 수집한 기록물은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선별·게재된다. 평소 성북구와 기록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성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 주민기록단 상반기교육 주요 활동



상반기 교육 포스터





상반기 교육

♣ 주민기록단 하반기교육 주요 활동



하반기 교육 포스터





하반기 교육

2022 성북문화원 소식

제2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 성북 마을기록 학술토론회

글: 염현주(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성북문화원이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다. 그간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고(2018.11~) 자치구 최초의 디지털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를 개설(2020.01~) 하는 등 크고 작은 결실을 거두었다. 마을기록화 사업의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 계획 수립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유하는 전시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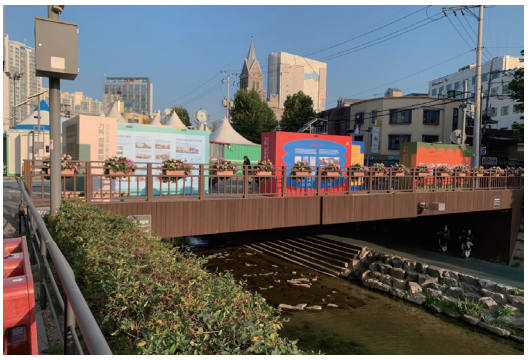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온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전시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가 민간기록물 공모전 수상작 및 전시가 열린 길음동의 장소성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난 5년간 생산·수집·보존한 성북의 모습을 총 11개의



제2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포스터



성북 마을기록 학술토론회 포스터

성북천 바람마당에서 열린 제2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전경

테마로 펼쳐놓았다. 성북마을아카이브 소개와 주민기록단 활동을 비롯하여 문학, 문화예술, 문화재, 미아리고개, 학교생활, 독립운동, 골목길, 하천, 도시 변천사 등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 160여 점을 통해 성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밝혔다. 지역의 자산으로서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록, 성북을 담다》로 전시 제목을 붙이고 성북구 역사의 현장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기능해온 성북천 인근 바람마당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성북구 배경의 문학 및 미술작품, 길음·장위뉴타운의 개발 이전 사진, 성북천 복개·복원 전후 모습, 동별 독립운동가 명단, 소풍·운동회·졸업식 등 과거 학교생활 사진, 1960년대 미아리고개 확장공사 사진 및 한국전쟁 당시 미아리전투 목격 주민 인터뷰 등의 기록물이 가을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야외전시의 장점을 살려 저녁에도 조명 아래에서 성북의 모습을 즐길 수 있었다.

전시에 이어 12월 9일에 개최한 성북 마을기록 학술토론회는 그동안 얻은 성과를 넘어 앞으로 성북마을아카이브에게 주어진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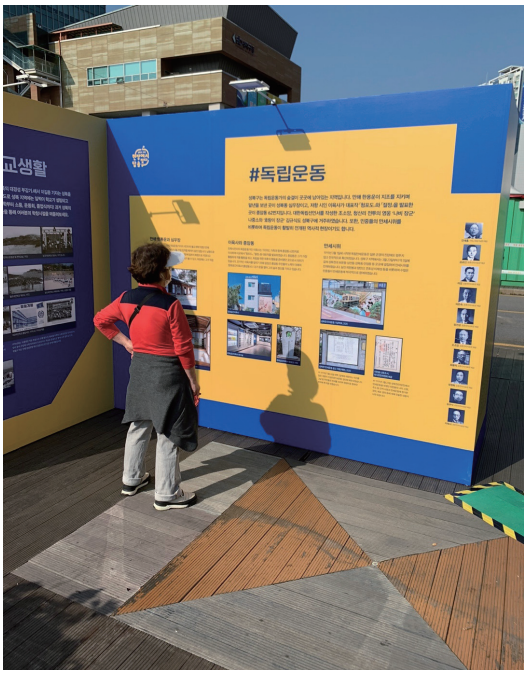
먼저 제1부에서는 오진아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장이 2018년 지역문화자원과 기록물 분류체계의 개발부터 2022년 관내 단체·기관과의 협업까지 연차별 사업 내용 및 주요 성과를 보고하였





제2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기록, 성북을 담다》를 관람하는 시민들





제2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기록, 성북을 담다》를 관람하는 시민들

다. 이어서 주민기록단 심미예 씨와 남명희 씨가 주민기록단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풀어놓았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를 소개하거나 마을의 변화상을 기록하는 이들의 활동은 주민의 손으로 성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록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행정, 기록관리, 공동체,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등 각 분야의 관점에서 성북마을아카이브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준비과정을 함께한 한재헌 성북구청 기획재정국장은 '자치분권 시대의 성북마을아카이브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마을기록 활동이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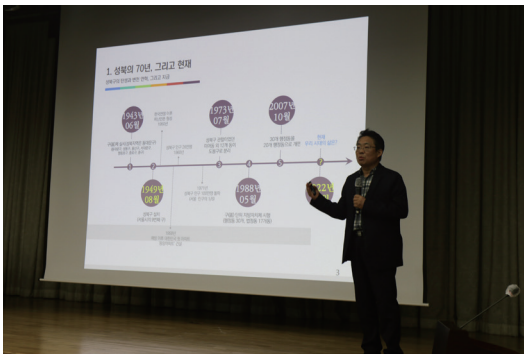




오진아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장의 성과 보고




주민기록단 심미예 씨(좌)와 남명희 씨(우)의 주민기록단 참여 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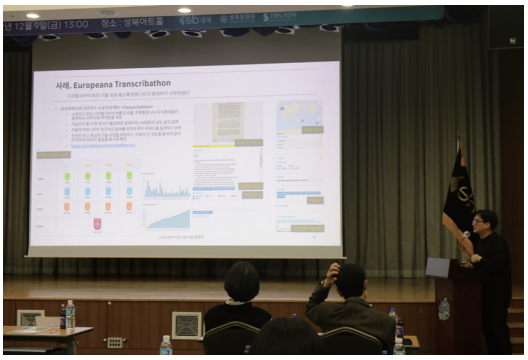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좌)과 임태원 기록연구사(우)의 주제 발표

북 마을공동체 복원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임태원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기록연구사는 성북마을아카이브를 통해 본 민간분야 기록관리와 공공기록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점차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관리의 교집합을 찾는 것도 성북마을아카이브가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성북마을아카이브의 발전 방향으로 느슨하지만 다수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민속학자로서 마을기록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쓴 김덕묵 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이 '공동체 관점에서의 성북마을아카이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민자치 조직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집을 제안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심점으로서 마을기록관 설립·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는 성북마을아카이브 시작 단계부터 민간기업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레벨나인 김선혁 대표가 맡았다. 디지털 아카이브 현장의 변화를 소개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성북마을아카이브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다.

네 번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동국대 문화학술원 이승호 교수의 사회로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박수진 성북문화원 부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성북마을아카이브가 이룬 뚜렷한 결실과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보는 한





김덕묵 소장(좌)과 김선혁 대표(우)의 주제 발표

편, 앞으로의 확장·활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는 시간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중요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전시와 학술토론회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을기록화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지역 기록문화 발전의 튼튼한 기초이자 자산으로서 기능할 성북마을아카이브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제3부 종합토론

제4회 성북학 학술회의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들여다보기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포스터

성북문화원은 약 10여 년 전, 향토사연구팀을 신설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5년 전 팀의 이름을 성북학연구팀으로 바꾸고 보다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학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각 지역에서 연구되고, 또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만큼 지역학의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전부터 많은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이름을 단 ‘ㅇㅇ학’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렇게 지역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각 분야에서 지역학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모호한 것이다.

성북문화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지역학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를 모시고 ‘성북학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언제나 지역학이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제1부 | 지역학의 현장

소주제 섹션1.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의 역할

소주제의 첫 번째 섹션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의 역할'에서는 일선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학을 다루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성북선잠박물관의 전서령 학예사가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전서령 학예사는 박물관이 갖는 역할과 기능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지적하며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북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자 지역박물관인 선잠박물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두 번째로 성북문화재단의 김주영 도서관기획팀장이 '축적의 시간을 잇는 도서관'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인물', '삶', '성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두고 이들을 과거에서 현재로 차곡차곡 쌓으며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연결하고 있는 성북 지역 도서관의 작업들을 이야기해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배성환 학예부장이 '지역사회 속에서 본 고려대학교 박물관'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대학의 박물관은 일반적인 공립 박물관이나 사립 박물관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대학 박물관 특성상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어렵다는 현실 또한 알려주었다.

세 기관 모두 저마다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의 김고은 학예사와 한성대학교 변제연 강사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김고은 학예사는 각 기관의 사례 중심의 발표가 인상 깊었고 저마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지역학은 학문의 일종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니 이를 남기기 위하





소주제 섹션1.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의 역할

여 노력하는 지역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나아가 대학 박물관은 지역학 속에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이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였다. 변제연 강사는 특히 과거의 기록을 현재로 이어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뜻깊게 여겨진다 밝히며 향후 박물관과 도서관 사이의 연계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소주제 섹션2. 사회적 경제와 성북

소주제의 두 번째 섹션 '사회적 경제와 성북'에서는 성북구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성북구에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다. 그중에는 우리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둔 사회적 기업도 많다. 지역학이 사회적 기업에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성북'의 첫 번째 발표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유창원 센터장이 '성북구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해주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조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북구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다만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는 '사회적 기업의 책임 -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기업 슈필렌의 송현우 대표가 발표해주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 슈필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였으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우리 지역의 슈필렌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해 온 역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는 발표였다.

세 번째로는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이상훈 이사장이 '369성곽마을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발표해주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시작하여 이후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조직되어 369마을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369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으로 하여, 마을이 지역 내에서 갖는 커뮤니티적 역할뿐만 아니라





소주제 섹션2. 사회적 경제와 성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마을기반 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러한 로컬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알려주었다.

이후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의 최형선 사무처장과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허현주 부회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최형선 사무처장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사회적 기업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허현주 부회장은 성북구 사회적 경제가 내년에도 많은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협동조합 등이 어려움이 많으니 이러한 부분을 함께 연대하여 타파할 방안을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주제 섹션3. 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

소주제의 세 번째 섹션 '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학을 마주하고 활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가재울초등학교의 조대진 교감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조대진 교감은 남부교육지원청 재직시절 '마을교과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마을교과서가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속의 학교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게 할 것인가, 즉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을교과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월곡초등학교의 김경수 교사가 해주었다. 주제는 '초등교육현장에서의 지역학'이다. 김경수 교사는 매년 학교교육과정이 구성되는 과정을 알려주면서, 여기에 지역학이 어떻게 반영되고 이용되는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나아가 일선 초등학교에서 지역학을 활용하고 있





소주제 섹션3. 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

는 다양한 사례와 노력 등을 알려줌과 동시에 갖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을 이야기해주어 시사점을 남겼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이 속삭이다-중등교육현장에서의 지역학'을 주제로 한민고등학교 김형태 진로전담교사가 발표하였다. 김형태 교사는 진로전담교사로서 지역학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나 특색을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과 동시에 지역학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지역학, 그리고 지역학 생산주체도 이를 활용하고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교육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정재은 장학사와 한성여자고등학교의 김태빈 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재은 장학사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혁신교육지구와 학교 현장, 학생에게 다가가는 현장의 모습을 잘 알려준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예산 관련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한성여자고등학교의 김태빈 교사는 오늘 발표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고 밝히며, 현장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 지역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지역학과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역과 현장의 연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자 제안하였다.

제2부 | 학문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

제1부 '지역학의 현장'의 세 가지 섹션에 이어 오후에는 제2부 '학문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이라는 대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작에 앞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송양섭 관장이 인사말로 "지역학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고 밝히며, 이번 학술회의가 동력이 되어 성북 지역의 기관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길 바란다고 하였다.

제2부 첫 번째 발표는 '역사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의 위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나각순 위원이 하였다. 나각순 위원은 지역학의 연구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성북구의 경우 지역성을 넘어 시와 국가 차원의 보편적 관계성을 갖는 지역학의 범주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북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활용하고 여기에 지역 주민,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의 참여를 통하여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김준현 교수가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현재 '지역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학에서 지역·공간에 관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그러나 '문학'과 '지역학'의 연결은 지역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나각순 위원의「역사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의 위치와 미래」(좌), 김준현 교수의「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우)

하였다. 나아가 '지역 문학'의 범위를 '지역 출신 문학'에서 '지역에 대한 문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성북에 대한 대중의 심상지리 형성과 확대에 기여한 작가와 작품' 또한 '성북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작가들의 상호 교류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이후의 과제로 삼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인들의 삶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학술회의 토론

세 번째는 성북구청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이 '삶의 흔적을 잇는 도시, 성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역의 공무원이 행정 현장에서 지역학을 어떻게 바라보며 인식하고 있는지 이야기함과 동시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양극화 등 다가올 미래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의 지역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학이 공동체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의 실천적 지역학'을 지향점을 두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역학에 기반한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개방과 협업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학의 경계와 확장'을 주제로 성북문화원 박수진 부장이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성북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역학의 공간적·학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학이 한계를 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지역학 연구에서 주어진 과제로는 지역학의 필요성과 학문으로서 지역학의 존립여부라고 밝히며, 지역학 연구는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어 당위를 갖는 학문이고 하나의 현상이 되었으므로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지역학을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네 가지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한성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트랙 이재석 교수의 진행으로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이승호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엄태웅 교수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지역학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와 문제점, 한계에 대하여 논의함과 동시에, 향후 지역학 연구가 지속 되어야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의 많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주민, 각 기관 등의 교류가 필수적이라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제4회 성북학 학술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 논의의 장을 통하여 지역학의 정의부터 가져야 할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역학이 연구·활용되는 다양한 양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학을 실체적 형태로 구현한 것이 성북마을아카이브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지역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역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면 그것이 지역학이 아닐까.

2022 성북문화원 소식

2022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아득한 시간과 경이로운 풍경, 연천'

글 :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교육사업팀)
사진 : 박이선 · 배인지(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참 오랜만에 서울 성북을 떠나 도착한 곳,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다. 경기도 최북단, 한반도 중심에 자리한 연천은 북한과 가깝다. 고대산 정상에서는 휴전선 너머 북녘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장구한 역사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득한 시간과 경이로운 풍경을 간직한 그곳을 상상했던 것도 잠시, 정신을 차리자. 오늘은 일반회원, 수강생들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날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이날을 고대한 탐방객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 물품을 옮기고 탐방객들을 챙기느라 겨를이 없었던 직원들도 출발 준비를 마쳤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일정을 짚어가며 연천으로 향했다.

시간 여행: 전곡리 유적과 전곡선사박물관

처음 도착한 곳은 약 30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사적).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구석기 연구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중요한 곳이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고 탐방객들은 옷깃을 여미며 해설을 귀담아들었다. 전곡리 유적 내



자유관람 전 해설 시간



전곡리 유적 내부



전곡선사박물관 외관



전곡선사박물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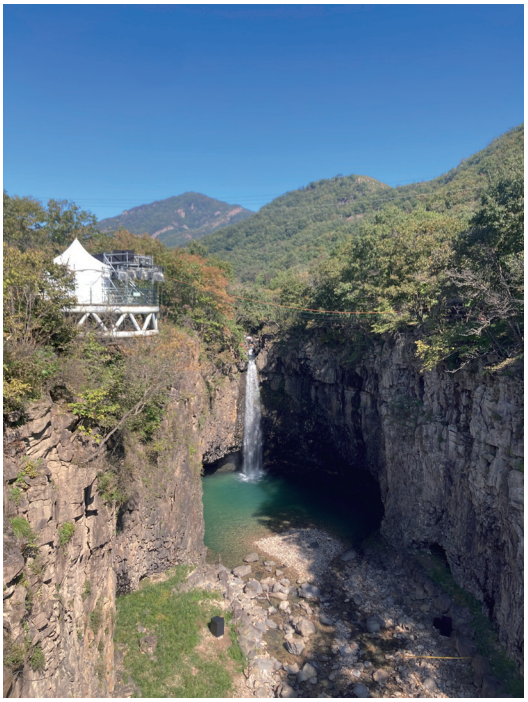
에는 토층전시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관람 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을 보여주는 조형물이 야외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구석기 축제가 열리는 곳인 만큼 매우 넓은 터에 잔디밭, 산책로, 숲이 잘 조성되어 있다. 탐방객들은 유적을 둘러보고 조형물들과 사진을 찍으며 걸음을 옮겼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전곡선사박물관에 닿는다. 원시 생명체의 곡선을 모티브로 건축된 박물관 지붕 위로 가을빛이 내려앉았다. 박물관에는 원시성과 현대성이 공존한다.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최초의 주먹도끼들을 관람할 수 있고, 인류의 진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복원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다음 세대에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가 전시될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다양한 식생, 지질의 변화와 전곡의 지층, 빙하기 인류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자연과 시간이 만든 장면: 재인폭포

연천이 아우르는 시간을 따라 재인폭포에 다다랐다. 재인폭포는 50만 년 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고 파이면서 만들어졌다. 탐방객들이 가장 기대하던 곳이다.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폭포를 만나기 전, 현무암 주상절리의 형성과정과 전설을 흥미롭게 들은 탐방객들이



재인폭포



폭포 가는 길에 피었던 노랑코스모스



재인폭포 물줄기가 합류하는 한탄강 일대

하나둘 출렁다리에 올라섰다. 걸림 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보인다. 다리에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 협곡에 서면 층층이 쌓인 돌과 거센 폭포 소리에 둘러싸인다. 신비로운 장면이다. 폭포는 원래 자리에서 380여 미터 물러난 위치에 있다. 계곡물이 절벽을 계속 깎고 있으니 몇만 년 뒤에는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둘레길을 따라가면 출렁다리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에 선녀탕이 있다. 지금의 재인폭포 주상절리가 침식, 붕괴되면 미래의 재인폭포가 형성될 곳이다.

2주 전, 사전답사 때 보았던 노랑코스모스가 모두 지고 말았다. 수십만 년 전 시작된 자연의 변화도 마주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다.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풍경 속에서 탐방객들은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즐겼다. 햇볕이 등을 데워주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임진강 절경이 펼쳐지는 곳: 연천호로고루

점심식사로 기분 좋은 충전을 한 뒤 마지막 탐방지, 호로고루에 들어섰다(사적 제467호). 넓은 공간에 홀린 듯 흩어지던 탐방객들을 모아 해설이 시작되었다. 호로고루는 삼국의 영토분쟁이 치열하던 5~7세기에 고구려가 쌓은 성으로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고구려 유적이다. 남쪽과 북쪽은 주상절리를 성벽으로 삼고 동쪽은 흙과 돌로 성벽을 쌓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

호로고루 주변 임진강은 삼국시대부터 호로탄, 술탄, 호로하 등으로 불렸는데 호로고루(瓠盧古壘)는 호로하 옆 옛 보루라는 뜻이다. 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표주박을 닮았다고 하여 조선시대에는 표로하, 표로고루라 불리던 것이 호로고루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어원이 내려온다.

탐방객들은 성의 독특한 형태를 살피며 호로고루에 올랐다. 임진강에 잔물결이 반짝이고 숲과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격전의 현장이었을 이곳에 지금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진다. 10월 말 호로고루의 들판이 소박한 색으로 변하고 있다. 여름에는 청보리, 가을에는 해바라기가 가득한 배경은 또 얼마나 찬란할까. 탐방객들은 풍경에 감탄하며 분주히 사진을 찍거나 호로고루 곳





호로고루 동벽 오르는 길



호로고루에서 바라본 임진강

곳을 거닐었다. 어느덧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탐방객들에게서 그리팅맨이 떠오른다. 그리팅맨(인사하는 사람)은 연천 옥녀봉에 설치된 높이 10미터의 조각상이다. 그곳에서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이 안녕하세요! 하고 북녘을 바라보며 안부를 묻는다. 연천의 자연과 역사를 들여다본 오늘, 존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리팅맨을 생각하며 연천을 떠났다.

2022년 성북문화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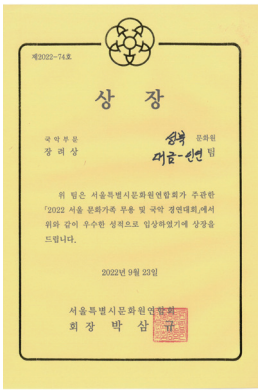
2022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느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2년입니다. 성북문화원에서도 문화예술을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 강사와 수강생들이 외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구분	강좌	성명	수상 내역
강사	가야금병창	이정아	제48회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수강생	대금	김희석·권영필 이정윤·송병은 전병기·김미영	2022 서울문화가족 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장려상
	민화 전통채색	강승진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고정순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구희숙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길윤경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제36회 대한민국회화대전 특선·입선
		김선화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우수상·장려상
			제10회 현대미술작은그림축전 신사임당상
		김정아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이영주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장호선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우수상·장려상
		전현숙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최희정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제10회 현대미술 작은그림 축전 신사임당상
		한진화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홍선애	제2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사군자	정명숙	제4회 대한민국통일명인미술대전 삼체상
			제13회 광화문광장휘호대회 특선
	사진교실	공진희	제37회 군산 새만금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선
			제7회 오산 독산성 및 전국 산성사진공모전 입선
			2022 과천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제6회 동두천 전국사진 공모전 입선
			제37회 성남 전국사진대전 특선
			제14회 숲 그리고 나무 과천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4회 화성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15회 홍성 전국사진 공모전 입선

구분	강좌	성명	수상 내역
수강생	사진교실	서석구	제46회 전주 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8회 파주평화전국사진공모전 특별상
			제44회 순천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2회 광명 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제20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 가작
			제16회 김포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제37회 성남 전국사진대전 입선
			제23회 순천시미술대전 입선
			제6회 동두천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37회 군산 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외 11건
		오수길	제37회 군산 새만금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선
			제7회 오산 독산성 및 전국 산성사진공모전 입선
			2022 과천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제6회 동두천 전국사진 공모전 입선
			제37회 성남 전국사진대전 입선
			제20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 장려상
			제14회 숲 그리고 나무 과천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4회 화성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15회 홍성 전국사진 공모전 입선
			제23회 순천시미술대전 입선
		이기창	2022 도봉을 담다 도봉구 사진 공모전 장려상
	한글서예	성정은	2022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임미숙	제26회 전국율곡 서예대전 특선
		전기옥	2022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제19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특선·입선
	한문서예	박영옥	2022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최우수상
			제20회 울진봉평리신라비서예대전 대상
			제14회 대한민국태을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
			제1회 우계휘호대회 대상
			제3회 아라가야전국서화대전 우수상
			제2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우수상
			제71회 개천예술제 전국휘호대회 최우수상
			제4회 자작고개 동학농민혁명 전국 휘호대회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 포은서예휘호대회 우수상
			제12회 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 특선
		정영미	제14회 한얼문예박물관 특별기획전 동상
			제8회 평화통일서예공모대전 특선
			제7회 매헌윤봉길의사 추모 전국 서예 휘호대회 입선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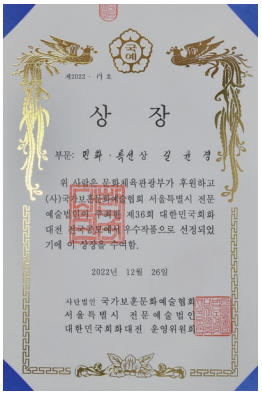
대금 | 김희석 외 5인



민화-전통채색 | 강승진



민화-전통채색 | 구희숙



민화-전통채색 | 길윤경



민화-전통채색 | 김선화



민화-전통채색 | 김정아



민화-전통채색 | 이영주



민화-전통채색 | 장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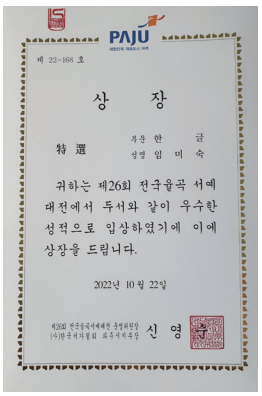
민화-전통채색 | 전현숙



민화-전통채색 | 최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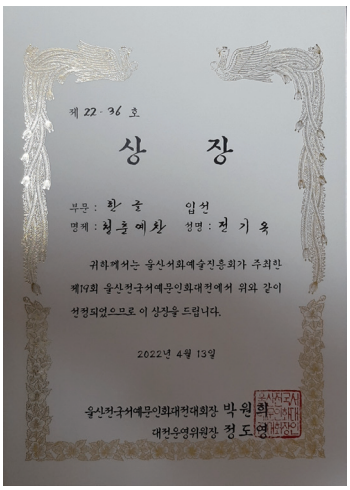


사군자 | 정명숙



한글서예 | 임미숙

상장 및 수상작


제 22 · 36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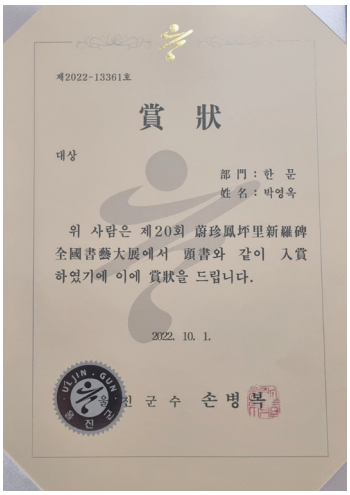
부문 : 한 글 임선
명제 : 청출예찬 성명 : 전 기 옥

귀하께서는 울산서화예술진흥회가 주최한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에서 위와 같이 성적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3일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대회장 박원희
대전운영위원장 정도연

한글서예 | 전기옥


제2022-13361호

賞 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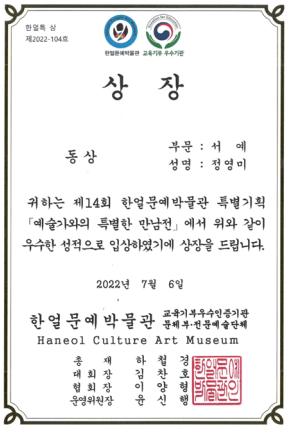
部 門 : 한 문
姓 名 : 박영옥

위 사람은 제20회 嵩珍鳳坪里新羅碑 全國書藝大展에서 頭書와 같이 入賞하였기에 이에 賞狀을 드립니다.

2022. 10. 1.

울진군수 손병복

한문서예 | 박영옥


한얼특 상
제2022-104호

상 장

동 상

부문 : 서 예
성명 : 정영미

귀하는 제14회 한얼문예박물관 특별기획 「예술가와의 특별한 만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6일

한얼문예박물관 교육기부우수인증기관 문체부·전문예술단체
Haneol Culture Art Museum

총 재 하 철 경
대 회 장 김 찬 호
협 회 장 이 양 형
운영위원장 윤 신 행

한문서예 | 정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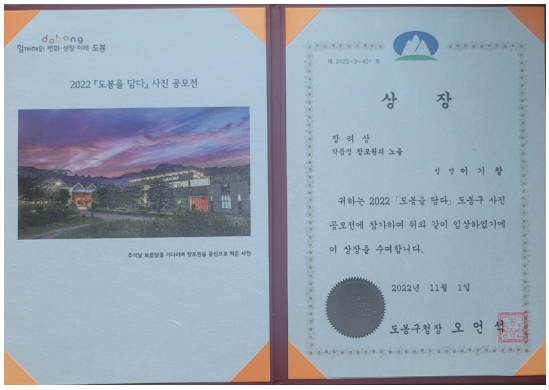
사진교실 | 새벽길 | 공진희



사진교실 | 눈 오는 날 | 서석구



사진교실 | 일출 | 오수길


dolong
함께하는 변화·성장 위해 도봉

2022 「도봉을 담다」 사진 공모전

상 장

장 려 상
작품명 창포원의 노을

성 명 이 기 창

귀하는 2022 「도봉을 담다」 도봉구 사진 공모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도봉구청장 오 언 석

사진교실 | 창포원의 노을 | 이기창

2022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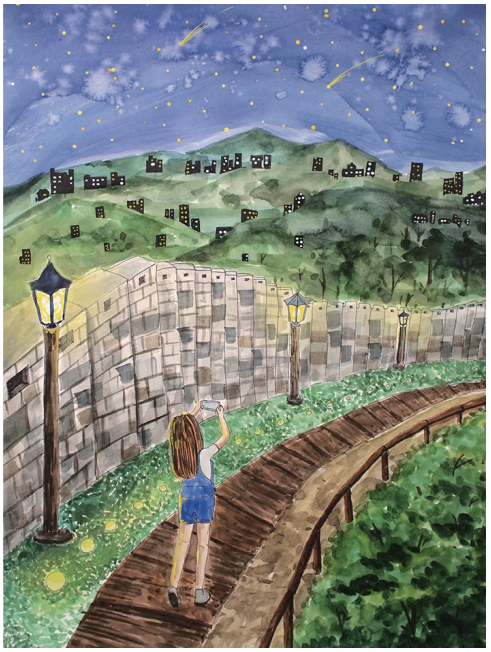
2022년 가을 선선한 바람을 따라 성북천에 깃발이 남실거렸습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 - 환경사랑, 성북사랑'을 주제로 한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총 310점, '성북구 시인 신경림'을 주제로 한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 총 118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총 146점이 깃발에 담겨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북구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신경림 시인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13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환경보호 캠페인 - 환경사랑, 성북사랑



성북구청장상
김채원(이문초 1)
〈별이 빛나는 밤의 산책〉



성북구청장상
박지원(숭례초 4)
〈맑은 하늘 성북구〉



성북구의회장상
이태경(개운초 3)
〈성북천을 달려요〉



성북구의회장상
임준혁(일신초 4)
〈우리 성북 환경은 내가 지킨다!〉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이은지(석관초 3)
〈순환하는 환경 사랑〉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이상결(장곡초 2)
〈남기지 말아요! 탄소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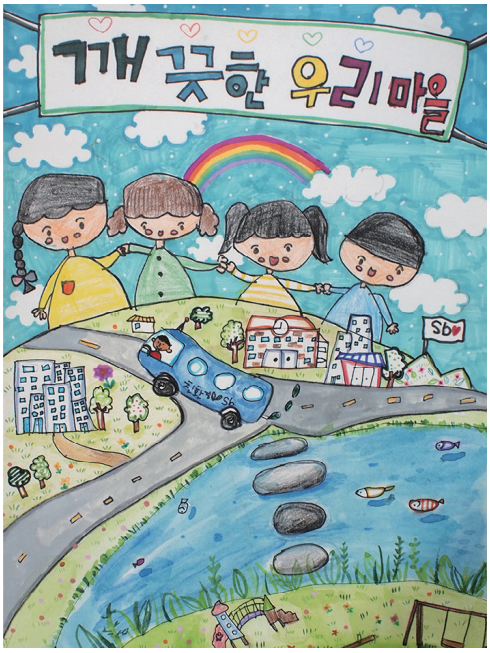
성북문화원장상
윤건승(개운초 2)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성북문화원장상
이윤재(경희초 3)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철한정화기업대표상
변서진(돈암초 4)
〈와!!! 성북천이 멋있어졌다!〉



철한정화기업대표상
양서윤(숭례초 2)
〈깨끗한 우리 마을〉



성북미술협회장상
여가은(정릉초 2)
〈지구의 행복을 위한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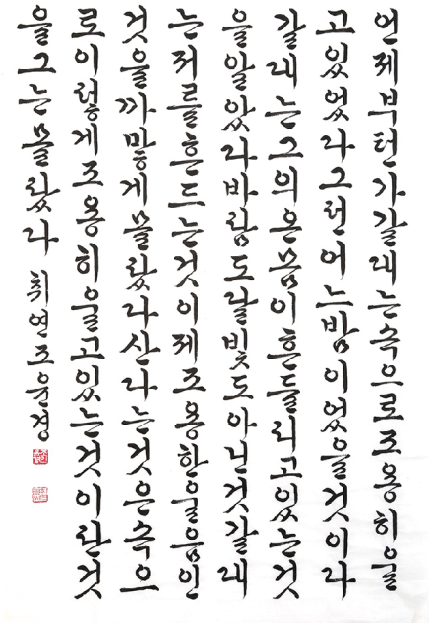


성북미술협회장상
여준후(장곡초 2)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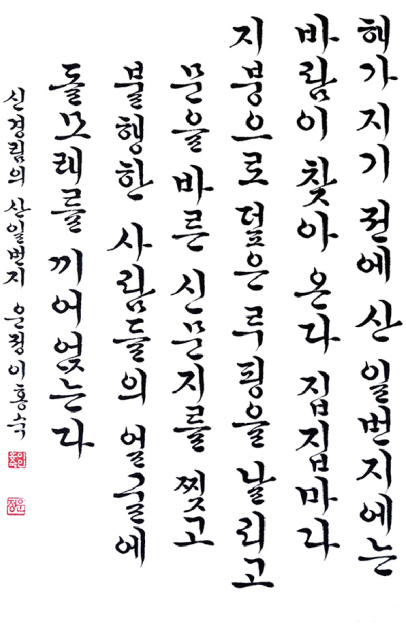
제13회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성북구 시인 신경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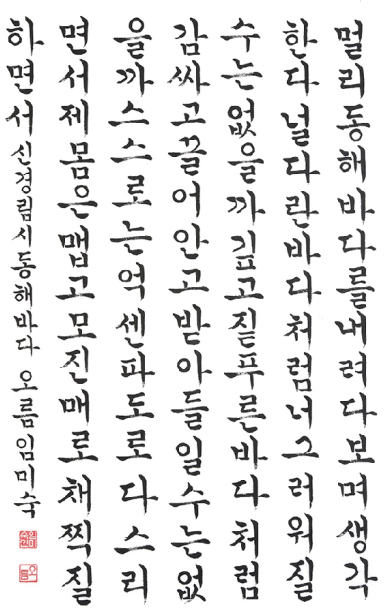
[한글서예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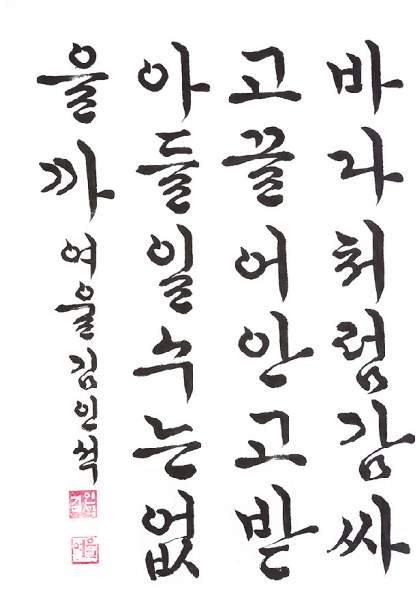
성북구의회장상
조윤경
〈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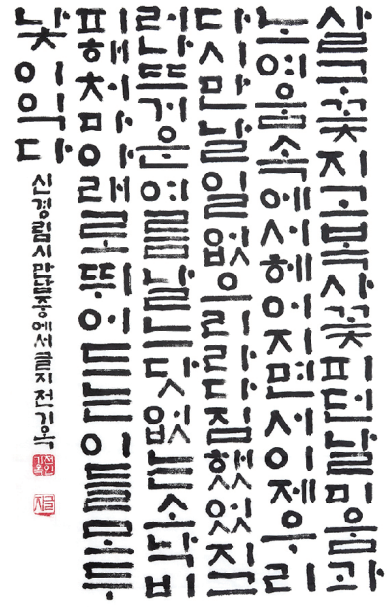
성북구청장상
이홍숙
〈산 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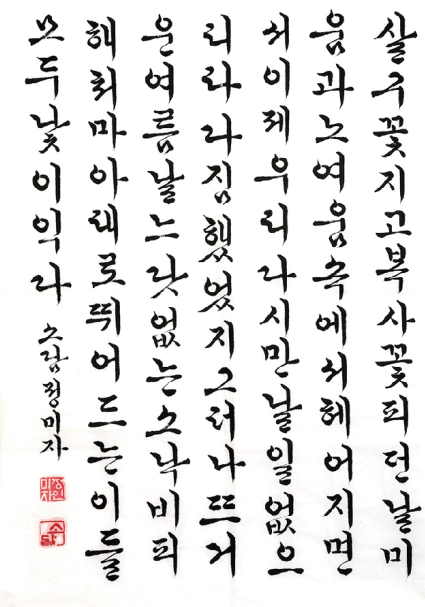
성북문화원장상
임미숙
〈동해바다〉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김인석
〈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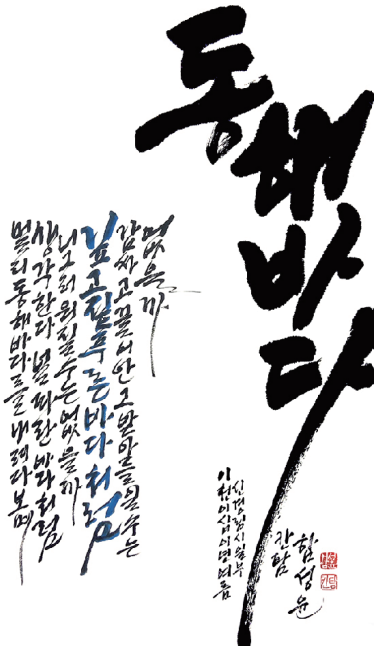


성북미술협회장상
전기옥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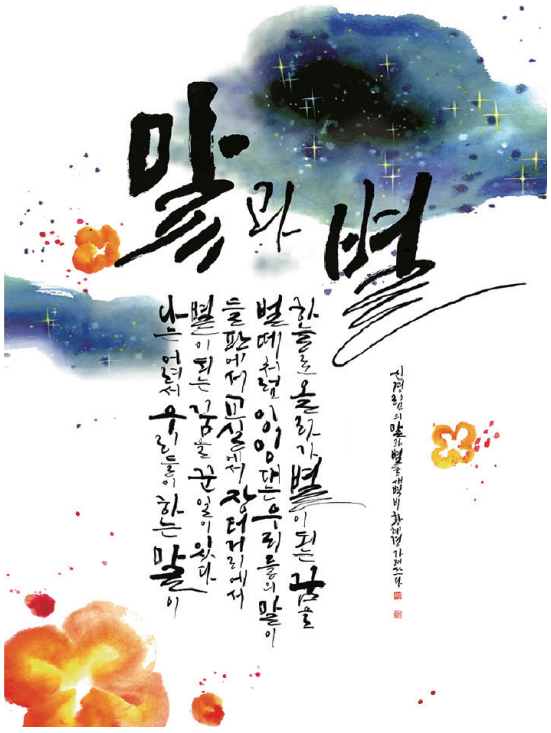


철한정화기업대표상
정미자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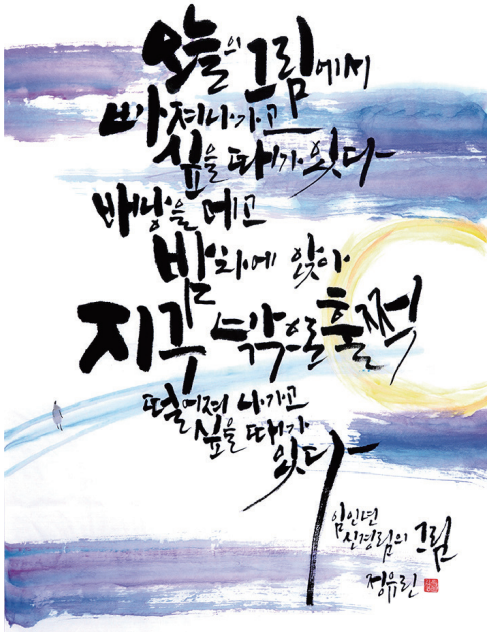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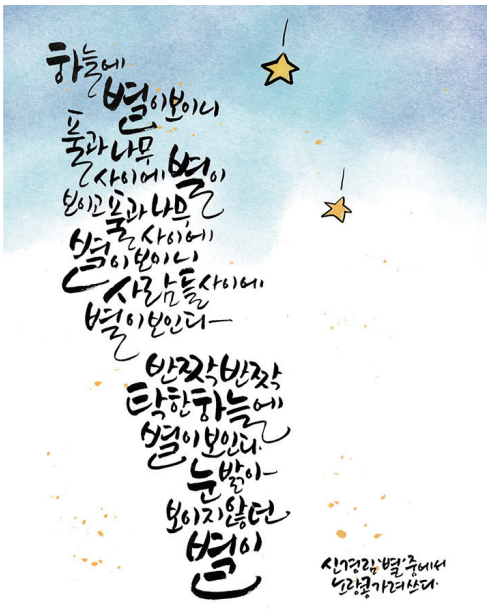
성북구청장상
함성윤
〈동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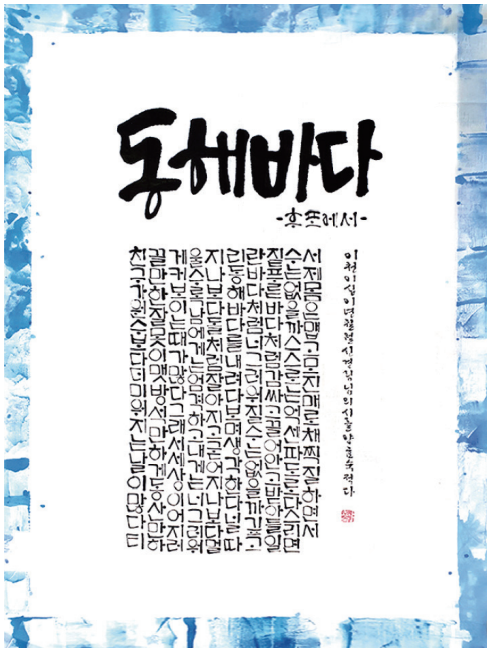
성북구의회장상
황혜경
〈말과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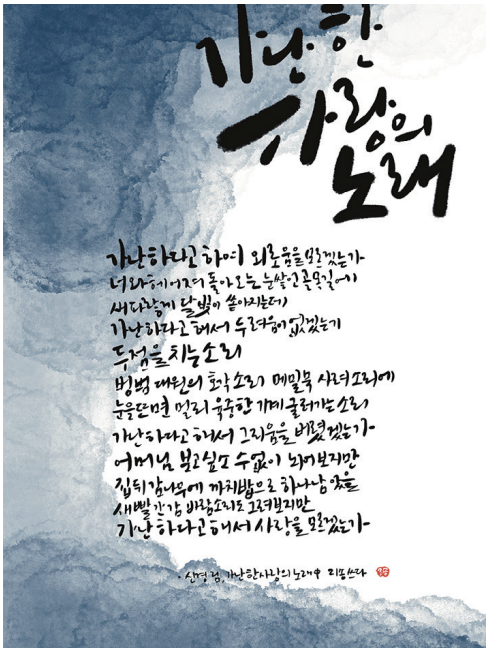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정유린
〈그림〉



성북문화원장상
이미경
〈별〉



철한정화기업대표상
양효숙
〈동해바다〉



성북미술협회장상
이소영
〈가난한 사랑노래〉

2022년 성북문화원 소식

사진으로 만나는 성북문화원의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성북문화원도 조금씩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했고, 여러분 덕분에 프로그램들을 재개하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따듯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수채화&데생



원어민영어회화



한국무용



한글서예

지역 문화 계승사업



프리미엄 인문학 I 중세 흑사병을 통해 살펴보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



프리미엄 인문학 I 재난으로 읽는 우리 역사



성북구 주민기록단(상반기)



성북구 주민기록단(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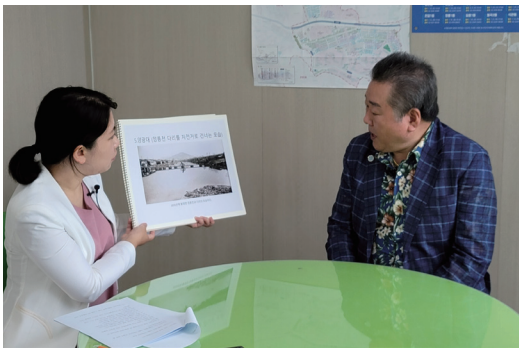


성북 문화 아카데미(상반기)



성북 문화 아카데미(하반기)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제1기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





성북역사문화탐방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I 연천





제2회 성북마을기록 전시 I 기록, 성북을 담다





성북 주민 아카데미 I 성북구민이 알아야 할 재미있는 교양



제4회 성북학 학술회의 |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제5회 성북학 학술회의 | 성북구의 도시개발과 주민 이야기





성북 마을기록 학술토론회 | 성북마을아카이브 5년, 성과와 전망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창작뮤지컬《심우》





만해 한용운 선사 78주기 추모 다례재



성북천 깃발전(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성북천 깃발전(팔랑거리는 상상전)



문화가 있는 날 I 談花: 꽃을 말하다



문화가 있는 날 I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



문화가 있는 날 I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



문화가 있는 날 I 꽃봉'우리', 만개하다



성북동밤마실 I 달빛에 풀어지다







제6회 서울 문화원 엑스포





창작뮤지컬《아나키스트의 아내》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국악 경연대회

업무협약

1. 기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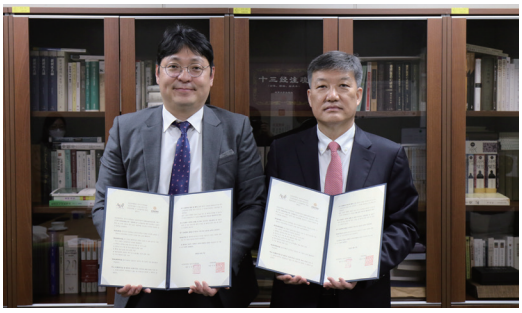


성북문화원·성북문화재단 업무협약(2022.08.10.)



성북문화원·서울특별시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2022.11.29.)

2. 학교 협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소와 성북문화원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2022.04.13.)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 성북문화원 교류 협약(2022.04.13.)

3. 성북구 마을 미디어 단체 등



성북문화원·성북구 마을미디어 단체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업무협약(2022.03.18.)



성북문화원·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업무협약(2022.10.13.)

수상





지방문화원의 날 유공(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I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기타





성북구 가족센터 선풍기 기증



노후시설보수 및 정비(홈페이지 개선)



노후시설보수 및 정비(조명 및 음향기기 교체)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 2021 자치분권어워드 동상 수상

기사입력 2022.01.22 10:38 최종수정 2022.01.22 10:38

'주민의 삶과 도시의 기록 저장소, 성북마을아카이브' 주제로 '지역브랜드' 분야 수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의 '성북마을아카이브'가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지역이 브랜드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자치분권어워드' 지역브랜드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2021 자치분권어워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16개 지역MBC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9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극장에서 개최됐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공모로 선정해 시상했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이 함께한 '성북마을아카이브'는 2020년 전국 자치구 최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서울시 자치구 최초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 제정, 주민 중심의 기록문화 정착 등 마을기록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2022.01.22.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1. 21.	전국매일신문	'성북마을아카이브' 자치분권어워드 지역브랜드 동상
2	01. 21.	서울신문	성북구 '성북마을아카이브' 자치분권어워드 동상 수상
3	01. 22.	아시아경제	'성북마을아카이브' 2021 자치분권어워드 동상 수상
4	01. 23.	여성신문	'성북마을아카이브' 2021 자치분권어워드 동상 수상

성북문화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마을아카이브 구축 업무협약

허인 기자 | 승인 2022.03.23 16:18



서울 성북구 마을기록 수집 및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성북문화원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 내 마을미디어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성북문화원은 지난 18일 성북구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성북구 마을미디어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마을미디어 콘텐츠(발간물·영상 등) 등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새로운 기록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는 성북문화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성북구 마을미디어 단체인 능말이야기, 성북동천,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편집위원회, 팡팡미디어,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호박이 넝쿨책-야책 총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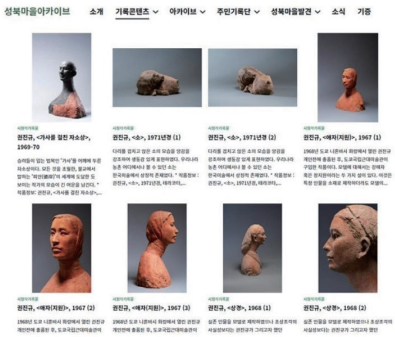
《신아일보》, 2022.03.23.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5	03. 23.	신아일보	성북문화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마을아카이브 구축 업무협약

성북구문화원, 조각가 권진규 탄생 100주년 작품들 '성북마을아카이브'에 공개

허인 기자 | 승인 2022.04.25 16:21

온라인으로 만나는 '천재 조각가' 권진규의 작품들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조각가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역 아카이브 누리집인 성북마을아카이브에 권진규의 작품을 촬영한 다수의 고화질 작품이미지를 공개하였다.

《신아일보》, 2022.04.25. 기사 발췌

서울 성북구 문화예술인 500여명,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 결성해 창립기념식 가져

김형근 기자 | 승인 2022.05.09 23:57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고장... 서울에서 문화예술인 가장 많고 활동도 활발
문화예술 정책의 민주화와 권익을 위해 공동선언문도 채택,



5월 9일 서울 성북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모임을 갖고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는 성북 지역 문화예술인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 지역 500여명이 서명했다. [사진= 성북구 성북문화원]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5월 9일 서울 성북구 지역 문화예술인 500여 명이 뜻을 모아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날 오후 4시 구청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창립식에는 성북구의 청년예술인, 극단 소속의 공연예술가, 화가, 조각가, 캠퍼스타운사업 종사자, 문학 작가, 문화원, 공. 사립박물관,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자 200여명이 모여 네트워크 창립을 선포하고 '성북구 문화예술 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뉴스퀘스트》, 2022.05.0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6	04.25.	신아일보	성북구·문화원, 조각가 권진규 탄생 100주년 작품들 '성북마을아카이브'에 공개
7	05.09.	뉴스퀘스트	서울 성북구 문화예술인 500여명,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 결성해 창립기념식 가져

성북구, 성북문화원과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이육사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창작국악공연단 앙상블5471 공연 등 진행



서울 성북구는 성북문화원과 오는 18일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다.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1939년부터 3년간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며 '청포도' '절정' 등의 대표작을 발표했다. 구는 이를 기념하고자 성북문화원과 함께 2015년부터 이육사 시인 탄생 기념 문화제를 매해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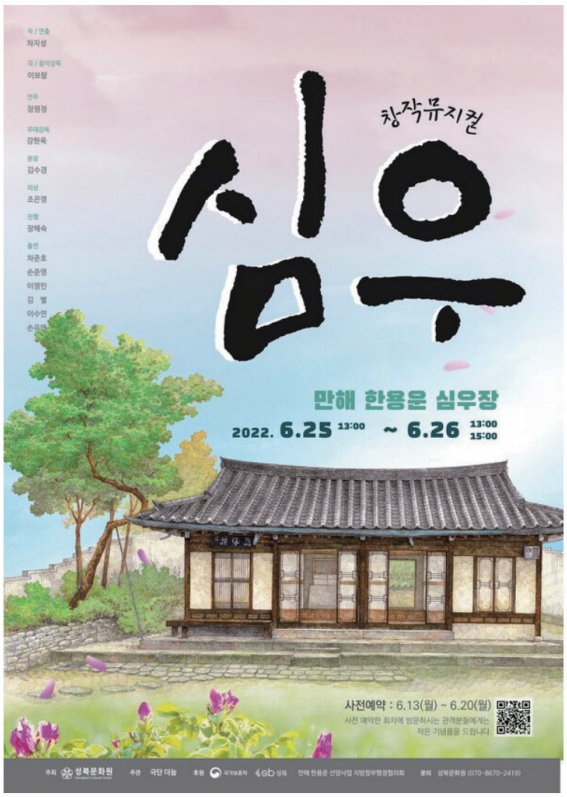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는 이육사의 시 '꽃'의 한 구절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오늘의 우리에게 꼭 맞는 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2022.05.1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8	05.10.	아시아경제	도봉구, 우이천 등축제와 함께하는 봄밤 음악회 개최… 성북구 종암동서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
9	05.10.	헤럴드경제	성북구, 18일 이육사 탄생 118주년 문화제 개최
10	05.10.	신아일보	성북구 종암동,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11	05.10.	문화일보	성북구, 성북문화원과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12	05.10.	잡포스트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개최
13	05.10.	데일리한국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14	05.10.	서울신문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연다
15	05.10.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이육사 기념 문화제 18일 개최
16	05.10.	뉴스1	이육사 탄생 118주년 맞아 성북구에서 기념 문화제
17	05.12.	뉴스퀘스트	시 '청포도', '절정'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
18	05.16.	아시아투데이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18일 개최
19	05.16.	디스커버리뉴스	'청포도', '절정'의 고향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
20	05.17.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개최
21	05.17.	아시아경제	'청포도' '절정' 이육사 탄생 118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
22	05.18.	한겨레	5월19일 알림

한용운 선생 유택 심우장서 창작 뮤지컬 '심우' 공연

김동선 기자 | 승인 2022.06.16 06:00



창작 뮤지컬 '심우' 포스터. (사진=성북구청)

[데일리한국 김동선 기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정신을 다룬 창작 뮤지컬 '심우'가 선생이 말년을 보낸 성북구 심우장에서 펼쳐진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 극단 더늠(대표 차지성)과 함께 준비한 창작 뮤지컬 '심우' 공연이 오는 25~26일 이틀간 총 3회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통신신문》, 2021.05.14.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3	06.11.	우먼스플라워	성북문화원, 이달 25~26일 한용운 선생 기념 뮤지컬 '심우' 무료 공연
24	06.15.	시민일보	성북구, 창작 뮤지컬 '심우' 선보여
25	06.15.	이데일리	성북구, 창작 뮤지컬 '심우' 무료 진행
26	06.15.	여성신문	성북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 창작 뮤지컬 '심우' 공연
27	06.16.	데일리한국	한용운 선생 유택 심우장서 창작 뮤지컬 '심우' 공연
28	06.16.	내일신문	창작극으로 만나는 독립열사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밖 신도시, 돈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이미숙 기자 | 승인 2022.07.06 06:09



[사진출처=서울시청]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장(김용석)은 2021년 돈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의 결과를 담은 『도성 밖 신도시, 돈암』 보고서를 2022년 6월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돈암 일대는 1930년대 후반 조성된 도성 밖 대단위 주택지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중산층의 거주지로 부상하였다. 해방 이후 정치.사회 및 문화예술인들이 몰려들었던 이곳이 아직도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각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물관과 외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을 밀착 기록하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과 연구진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로서 '지역활동가'를 활용한 것이다. 지역활동가는 돈암동, 보문동, 동선동, 삼선동, 안암동 등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으로서 지역 활동을 활발히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 선정하였다.

《한국강사신문》, 2022.07.0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9	07.04.	연합뉴스	서울역사박물관, 성북문화원과 '도성 밖 신도시, 돈암' 발간
30	07.06.	한국강사신문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밖 신도시, 돈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영겁의 유적' 성북문화 위상 제고 앞장

성북을 빛내는 인물 /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지역축제 전시공연 등 총괄지휘…성북문화원을 '명예의 전당'으로
"성북 문화자원 메타버스로 구현해 지역문화포털 구축하고 싶어"



성북문화원 사무국 총괄을 맡고 있는 강성봉(姜成奉·46·사진) 사무국장. 그를 처음 마주한 건 꼭 10년 전인 2012년 가을께였다. 당시 성북문화원에 발령받은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작은 집무실 책상 위엔 성북구 역사에 관한 책들로 널브러져 있었다.

몇 달 뒤 그의 손을 거쳐 '성북역사문화 산책시리즈' 책자가 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을 때 그의 얼굴은 출산(?)의 기쁨 때문인지 감격과 환희로 물들어보였다. "성북구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신비롭다"며 눈을 빛내던 그는 "성북구가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도시"란 말도 덧붙였다. 몇 날 몇 달 외박(?)하기는 부지기수. '일벌레'란 닉네임답게 문화원사무실 의자에 앉아 밤새워 쪽잠과 그루잠 자기를 반복하며 만들어낸 국장 강성봉의 성과는 곳곳에 널려 있다.

지금이야 사무국 직원이 인턴을 포함해 총 20여명이지만, 2012년 부임 당시는 고작 3명뿐이었다고. 탄력 있는 운영을 위해 강 국장은 사무국 직원을 확충했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계약직 신분이었던 직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강 국장의 복리후생에 감화한 직원들도 보답코자 혼신을 다했다. 직원들은 강 국장과 파트너가 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수많은 공모사업을 수주하면서 지금 성북구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문화도시'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고 있는 것.

《새성북신문》, 2022.07.11. 기사 발췌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가 주민의 손으로 기록에 남는 곳

정기환 기자 | 승인 2022.07.21 18:29

행정영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내 이야기를 주민들이 직접 수집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가 주민의 손으로 기록에 남는 곳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마을기록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성북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마을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살아가는 지역에서 마을기록을 수집하는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다.

《디스커버리뉴스》, 2022.07.2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1	07.11.	새성북신문	<성북을 빛내는 인물>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32	07.21.	디스커버리뉴스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가 주민의 손으로 기록에 남는 곳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원과 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 공유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성북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기대

출처: 성북문화재단
2022-08-11 11:46



왼쪽부터 성북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8월 11일 --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10일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과 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조태권 성북문화원장이 참석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추진 기반을 확보하며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항에 협력하는 등 협력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의 공유 △성북구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 협력 △지역 문화 축제 및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 △성북 지역 문화·예술 자원에 관한 연구 및 아카이브 협조 등 관련 사항에 협약했다.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성북문화원과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단과 문화원의 꾸준한 협력을 기대하며,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발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북문화재단은 올들어 성북문화도시센터를 구성했다. 민·관 공동센터장체제로 운영되는 문화도시센터는 성북문화도시추진위원회, 행정협의체, 사업별 워킹그룹(운영단) 등 다양한 시민과 함께 법정문화도시 선정과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적 삶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4차 문화도시 예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은 올해 말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와이어》, 2022.08.1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3	08.11.	뉴스와이어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원과 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 공유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아일보

2022-08-31 16:24:00 편집

독일 다니엘, 오늘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 공연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만이 피아노 연주 공연자로 나선다.

다니엘 린데만이 이끄는 '다니엘 린데만 트리오'는 31일 저녁 7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에서 열리는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작곡가 금수현의 곡을 재즈 트리오로 연주, 자작곡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JTBC '비정상회담',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은 현재 JTBC '톡파원 25시'에 고정 출연 중이다. 그는 2017년 첫 자작곡 '에스페랑스(Esperance)'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8년 미니앨범 '세레나데(Serenade)', 2019년 '스토리(Story)', 2010년 '라스팅 메모리(Lasting Memory)', '키즈 투 서머(Keys to Summer)', 2021년 '미라지(Mirage)', 2022년 '(앤드 쉬 세드 익스큐즈 미(And She said Excuse Me)' 등을 발표했다.

《스포츠동아》, 2022.08.3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4	08.27.	뉴스퀘스트	다니엘 린데만,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개최에서 연주
35	08.31.	일간스포츠	다니엘 린데만 '오선지에 뿌려진 꽃시' 공연 출연… 자작곡 무대
36	08.31.	인터뷰365	'다재다능'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피아니스트로 무대 오른다
37	08.31.	이데일리	다니엘 린데만,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시)' 무대 오른다
38	08.31.	스포츠동아	독일 다니엘, 오늘 '오선지에 뿌려진 꽃詩' 공연

[서울25]성북구, 지역 내 역사·문화 한눈에 담은 책자 발간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2022-09-05 14:50 입력 | 2022-09-05 14:50 수정




내사산의 막내 낙산과 낙산길

서울 성북구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 200여개를 소개하는 책자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을 발간했다.

성북구는 5일 "지역의 유산을 후대에 기록물로서 잘 전달하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며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 발간 소식을 알렸다. 성북문화원이 1997년 <성북의 문화재>를 발간했으나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간의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편찬한 책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 1부는 '성북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을 시작으로 '정릉'을 거쳐 '장위동 김진흥 가옥'에 이르기까지 실제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것과 같은 생생함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 2022.09.0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9	09.05.	뉴스1	성북구, 지역내 문화유산 망라한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 발간
40	09.05.	신아일보	성북의 역사·문화 한눈에 담은 책자 나왔다
41	09.05.	공감신문	성북의 역사·문화 한눈에 담은 책자 나왔다
42	09.05.	경향신문	성북구, 지역 내 역사·문화 한눈에 담은 책자 발간
43	09.05.	시민일보	성북구, 지역 문화유산 소개 책자 발간
44	09.06.	여성신문	성북구,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 책자 발간

'성북동밤마실-달빛에 풀어지다' 개최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9.27 10:20

성북구, 문화재문화시설 야간 개방...해설 탐방



성북동밤마실 포스터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이 주관하는 '성북동밤마실-달빛에 풀어지다'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성북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27일 구에 따르면 '성북동밤마실은 2017년부터 시작된 '성북동문화재야행을 잇는 행사다. 만해 한용운 심우장, 최순우옛집,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이종석 별장, 선잠단지 등 문화재와 우리옛돌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성북동예향재, '성북역사문화센터 등이 이번 '성북동밤마실 기간에 특별히 야간에 개장한다. 예약하면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성북동밤마실 메인 거리와 '성북동 문화재 사이를 이동하는 '성북전차'도 운영한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이동식 체험관으로 문화재 또는 문화시설 정류장에서 내려 '성북동밤마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17시~21시 사이 한성대입구역(GS25 편의점 앞)에서 10분 간격으로 운영한다.

《전국매일신문》, 2022.09.27.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5	09.27.	신아일보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46	09.27.	전국매일신문	'성북동밤마실-달빛에 풀어지다' 개최
47	09.27.	헤럴드경제	성북구·성북문화원, '성북동밤마실-달빛에 풀어지다' 개최
48	09.27.	시민일보	성북구, 30·1일 '성북동밤마실-달빛에 풀어지다'
49	09.27.	한겨레	"나무 향기 시냇물 소리 지나 님 보러 성북동 밤마실 가자"
50	10.04.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성북동밤마실-달빛에 풀어지다' 성료

2022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그룹 회장
부원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김영일	(주)태명실업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신한	대성산업가스 사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부관장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공상구	마이아트 옥션 대표
	김진동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책위원
	백병수	자일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승철	가수
	이영기	법무법인 LKB & partners 대표변호사
	최종명	최종명세무사사무소 대표
(당연직)	성기창	성북구청 복지문화국장

감사

정호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최한진	다율회계법인 부대표

운영위원

계영선	영라인의원 원장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1과장
이홍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한민석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유형균	철한정화기업 전무이사
이병곤	前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전문위원
황장훈	(유)세무법인 혜움 세무사

고문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박병호	前)서울시문화관광해설사
이병무	(주)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주)피죤 회장
이의순	(주)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CEO회장
정승소	(주)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 회장

2022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권아름, 김석중, 김연화, 김용준, 김우섭, 김유영, 김은화, 김의성, 김장현,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진흠,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상찬,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서준석,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건자, 이상훈, 이승호, 이응선,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주헌, 이준성, 이중민, 이현주, 임석규, 전원호, 정병기, 정　영,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한민석, 홍선희, 황장훈, 황재호

기관·단체

㈜삼신엠앤티, 주식회사 피사일삼, 철한정화기업(주), 홍천사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영라인의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6길 4)



고기 굽는 마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9-4)



구포국수 (서울 성북구 성북로 52-1)



데자르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30 2층)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 ·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 · 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 ·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23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